

대한민국 백년지대계 가덕신공항 조속 건설

가덕신공항 건설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생산유발효과
88조 9,420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37조 2,318억원


취업유발효과
536,453명

공항건설, 공항운영, 항공운송, 여객여행, 접근(연결) 교통망 구축, 배후도시개발 등



부산체육 2020 11+12 Vol. 28

2020. 11+12
Vol. 28

부산체육
Busan Sports Council Magazine

Target on

목표 설정
최고를 향한 찌들의
목표 설정!



부산광역시체육회
BUSAN SPORTS COUNCIL

발행일 2020년 12월 10일(격월간, 비매품, 통권 제28호)
발행인 부산광역시체육회 장인화 회장
편집인 김동준
편집취재 성기환, 문찬식, 김성무, 하나근, 유동호
발행처 부산광역시체육회
부산광역시 동래구 사직로 77(T. 051-500-7900)
디자인기획 대훈기획(T. 051-898-0330)

표지기사 COVER STORY



TARGET ON 목표설정

그 누구도 아닌 자기 걸음을 걸어라.
나는 독특하다는 것을 믿어라.
누구나 물려가는 줄에 설 필요는 없다.
자신만의 걸음으로 자기 길을 가라.
바보 같은 사람들이 무어라 비웃든 간에.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 중에서-



스포츠, 삶을 말하다

04 프롤로그

사람 & 열정의 온도

06 찬스가 아닌 찰나의 승부, 예(禮)를 중시하는 무예 고수!
정심검도관 8단 이승호 원로

잠재력 가득 스피릿

10 한국 근대5종 황금시대를 연 철인 여전사!
BNK저축은행 근대5종 정민아 선수

톡톡동호회

14 변수의 조합, 그래서 인생! 하고재비만 모였다!
2019 부산광역시장배 슈퍼컵 야구대회 1위 '위드베이스볼' 야구동호회

Hot Issue

18 2020 부산체육 진흥 세미나

스포츠 전국 투어

22 설원을 나는 스키에!
환상적인 질주의 도시, 평창



스포츠, 깊이를 보다

스페셜 특집

- 26 서부산 지역 특화, 해양스포츠 활성화 전략
동서대학교 운동처방학과 김성겸 교수
- 30 해양자치권 확보와 해양레저산업 과거 사례의 교훈
부산경남미래정책 안일규 사무처장

이슈 & 포커스

- 34 2020 생활체육지도자 인권·실기교육 개최
- 35 부산광역시체육회와 (재)우성스포츠재단 장학지원
협약 및 장학금 수여식

스포츠센터 Info

- 36 47년 역사를 자랑하는 부산 최초의 실탄사격장
부산광역시종합사격장

건강IN 헬스

- 38 만성피로 극복하는 슬기로운 방법

중인 스포츠

- 42 부드러우면서 예리한 우아하면서도 격렬한 결투,
펜싱의 세계

문화 스펙트럼

- 46 펜싱과 사격 관련 책과 영화



스포츠, 행사를 담다

50 구·군체육회

54 회원종목단체, 부산공공스포츠클럽

센터 inf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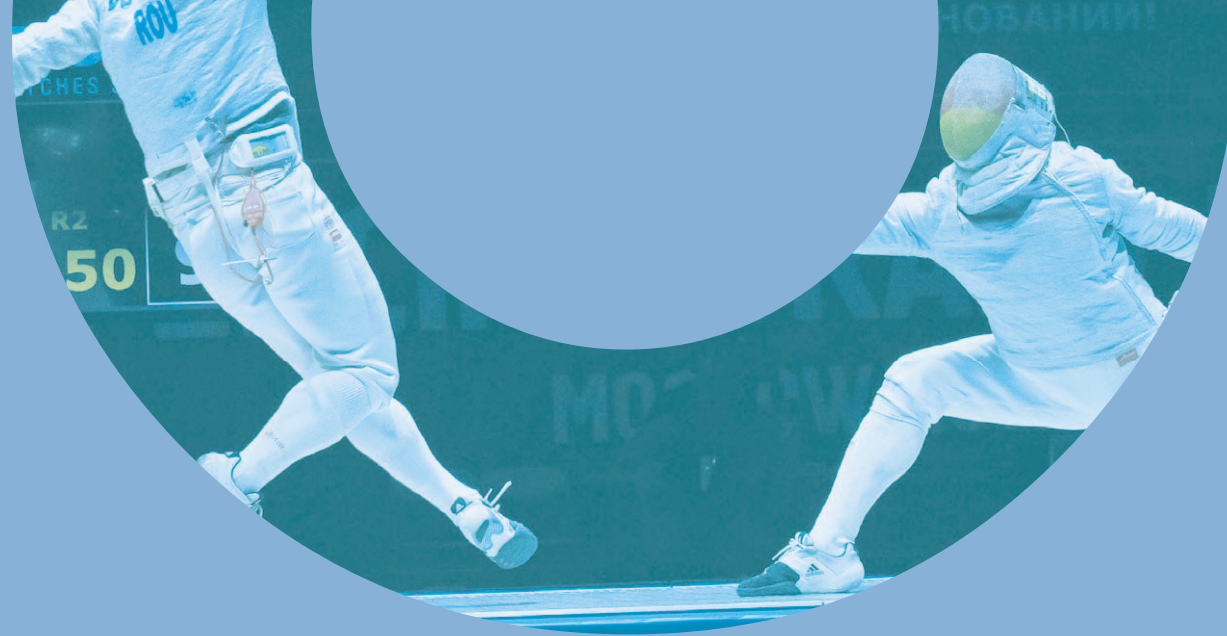
- 56 부산국민체육센터
- 57 북구국민체육센터
- 58 영도국민체육센터
- 59 강서구국민체육센터
- 60 부산실내빙상장

61 단신 뉴스



S

Target on



자아효능감이 가져다주는 기적 Target on

무리한 목표보다 작아 보여도 가치 있고 이룰 수 있는 목표를 세우는 게 중요하다. 성공 경험을 반복적으로 느껴 자아효능감을 키워라! '오늘부터 매일 운동할 거야'보단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운동한다'는 목표가 더 좋다는 얘기다. 자기 평가를 외부에 두는 것도 자기 확신을 떨어뜨린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기는 어렵다. 알아주든 말든 소중한 목표를 세우고 나아가겠다는 든든한 배짱이 필요하다.

T

S

interview #01

찬스가 아닌 찰나의 승부, 예(禮)를 중시하는 무예 고수!

정심검도관 8단

이승호 원로

검도 인생 43년, 올해 71세로 정심검도관을 운영 중인 이승호 원로를 만났을 때 183cm 큰 키에 족히 20년은 젊어 보여서 내심 놀랐다. 찰나에 승부가 결정되는 무도(武道)인 검도, 수십 년간 고도의 집중력과 담력을 수련해온 덕분일까. 얼굴빛은 투명했고 깨끗한 허리에 힘 있는 눈빛, 강단 있는 어조가 인상적이던 이승호 원로. 2남 3녀 중 장남으로 운동보다는 공부 쪽으로 대성(大城)하길 바랐던 부모님 때문에 검도 입문(入門)은 꽤 늦었다. 즐기는 자를 이길 자 없다고 했던가. 그는 현재 부산광역시검도회 자문의원이자 대한검도회 심사위원으로 활동 중이며 33년째 정심검도관을 운영해온 부산 검도계의 살아 있는 산증인이다.



대한심도관에서 승단 기념으로 동료들과 함께

1983년 부관친선검도대회 참가차
부관페리호를 탄 이승호 원로 일행

돌고 돌아 결국 택한 건 검도, 만족스러운 삶

전군이 잦았던 경찰 아버지를 따라 초등학교를 4군데나 옮겨 다녔다. 활동적이고 리더 기질이 다분했던 터라 동네 아이들과 냇가로 산으로 놀러 다니면서도 대장 역할을 도맡았던 유년시절, 또래들에 비해 신체 조건이 월등했고 특히 운동에 소질이 남달랐던 이승호 원로. 그가 다닌 중학교에서 야구부를 창설했는데 반대항시합에 나가 투수로 맹활약해 우승을 차지, 그의 재능을 알아본 야구부 감독은 그를 영입하려 애썼지만 운동하는 걸 완강히 반대하는 부모님의 뜻을 거역할 수 없어 마음을 접었다는 이승호 원로.

“어릴 때 참 운동을 좋아하고 잘했어요. 부모님은 운동의 ‘운’자도 꺼내지 못하게 하셨죠. 한번은 고집을 부린다며 문밖으로 내쫓기도 하셨어요. 그 시절 부모님 세대가 다 그러셨죠. 운동이나 미술, 음악이 직업인 이들을 ‘탄따라’라고 부르면서 굶어죽기 딱 좋다고 폄하하셨죠. 물론 지금은 세상이 확 변했지만요. 왜 그렇게 하고 싶다는 걸 못하게 막으셨는지 모르겠어요. 돌고 돌아서 결국 제가 좋아하는 운동으로 잘해왔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데 말이죠.”

축구며 야구, 핸드볼 했다 하면 두각을 드러낼 만큼 운동 감각이 남달랐던 이승호 원로, 검도와 인연은 고2로 거슬러 오른다. 부모님 몰래 오래도록 흠모해온 검도를 배우려고 찾아간 곳은 대한심도관, 알고 보니 정통 검도를 가르치는 곳이 아니라 유도, 검도, 태권도 등 기술을 배우는 곳이었다고. 군대에 다녀온 뒤 동아대학교 축산학과로 진학한 후로도 검도를 제대로 배워야겠다는 생각만 가득했던 그다. 그 당시 흔치 않던 검도장을 수소문해 찾아가는 곳은 문현동 언덕바지에 위치한 부산대원관, 그 당시 부산에서 검도의 대가로 손꼽히던 도호문 선생이 운영하던 곳이었다. 스승에게 큰 절을 올리고 28세에 검도에 입문한 이 원로, 시작이 늦었다는 생각에 남들보다 두세 배로 열심히 검도를 익힌 이 원로는 초단으로 시작해 8년 만인 36세에 5단을 땀다.



Kendo

고도의 집중력, 내 분야에서 최고가 되겠다는 포부



“37세에 정심관 도장을 개관했는데 집안 아저씨의 땅을 빌려 도장을 운영했어요. 그런데 말도 없이 땅을 파서서... 2년 뒤 본래 위치보다 약간 위쪽에 건물을 짓고 도장 문을 다시 열었죠. 처음 도장 문을 열었을 때는 제 은사인 도호문 선생님이 68세였는데,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개관식을 못했고 2년 뒤 도장을 다시 열었을 때는 은사님이 병중에 있다가 돌아가셔서 개관식이 무산되었죠. 은사님이 돌아가신 와중에 개관식을 할 경황도 없었고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한동안 슬럼프에 빠졌고 도장을 운영하는 내내 마음을 다잡기가 힘들더군요.”

이승호 원로를 무도의 길로 이끌어준 은사 도호문 선생의 부재는 오랜 시간 그에게 공허감을 안겨줬다. 계속 슬픔에 빠져 있을 수만은 없는 터, 1985년부터 맡아온 부산광역시검도회 총무, 재무 이사 업무에 집중하면서 재정적으로 힘든 검도회 발전에 신경을 쏟았다. 2000년 들어 부산광역시검도회 부회장직을 4년, 감사직을 4년 맡았고 2019년까지 사하구검도회 회장에 이어 2019년부터 2020년까지 대한검도회 공정위원을 맡았다. 현재는 부산광역시검도회 자문의원과 대한검도회 심사위원으로 활동 중이며 33년째 정심검도관 관장을 맡아왔다.

“검도를 생각하면 정직함, 성실함이란 단어가 떠올라요. 찰나에 승부가 나는 운동이고요. 보통 찬스에서 승부가 나지, 찰나에 승부가 나는 운동은 거의 없거든요. 그만큼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하겠죠. 대회에 나가서 지면 잠도 안 자고 왜 졌는지 분석했어요. 워낙 낙천적인 성격이라서 진 것을 분해한다거나 스트레스 받는 건 아니었고요. 다음 시합에는 이렇게 해야지 머릿속으로 그려보면서 훈련에 더 집중했죠. 제 승부근성도 대단한 편인데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가 되겠다는 신념과 포부, 누구나 다 갖고 있지 않아요.”

“

검도를 생각하면 정직함, 성실함이란 단어가 떠올라요. 찰나에 승부가 나는 운동이고요. 보통 찬스에서 승부가 나지, 찰나에 승부가 나는 운동은 거의 없거든요. 그만큼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하겠죠.”



주요 수상 경력

선수

- 1986년 전국단별검도선수권대회 5단부 3위
- 1990년 전국단별검도선수권대회 6단부 3위
- 1998년 전국단별검도선수권대회 7단부 3위
- 1999년 전국단별검도선수권대회 7단부 준우승
- 2003년 7단 선수권대회 장려상
- 2004년 7단 선수권대회 감투상

지도자

- 1995년 부산광역시도장대항 검도대회 종합우승
- 1998년 한국사회인검도대회 남자부 단체우승
- 1999년 한국사회인검도대회 남자부 단체우승, 여자부 단체준우승

수상내역

- 1988년 대한검도회 공로
- 2009년 대한검도회 최우수검도장 표창



다시 태어나듯 매일 새로워지는 삶의 시작, 검도

대한검도회 중앙심사는 봄, 가을 일 년에 두 번 열리는데 대략 30명가량의 8단 응시자가 승단심사를 본다. 일 년에 합격자는 전국에서 2~4명 정도 나오고 아예 합격자가 없는 경우도 있다고. 68세가 되던 2017년, 열두 살이나 어린 상대 선수를 이기고 사법고시보다 더 어렵다는 8단을 따낸 이승호 원로, 현재 부산에 생존하는 검도인 중 8단은 4명가량이라고 했다. 어려서부터 자유분방했고 타고난 기질 자체가 가만히 있지 못하는 성격이라 뭔가를 자꾸 배우거나 도전하는 데 주저함이 없던 이 원로, 50년 가까이 사진작가로 활동 중인데다 봉사할 요량으로 사하문화원에서 아코디언을 배우기도 했다. 그 외에도 사하경찰서 자율방범대장, 괴정1동 방위협의회 회장 등 사회봉사에도 적극 참여해왔다. 앞으로는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 보다는 관계 맺고 익힌 것들을 끈끈하고 깊게 이어갈 계획이라고.

“어느 분야든지 한 길을 변함없이 가다 보면 좋을 때도 있고 꺾을 때도 있겠죠. 저 또한 뒤늦게 검도에 입문한데다 일반 출신으로 8단을 따기까지 말로는 다할 수 없는 마음고생이 뒤따랐답니다. 하지만 일희일비(一喜一悲)하지 않고 매 순간 최선을 다했던 터라 검도 인생에 후회는 없어요. 부산 검도계가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시기, 종합실내 훈련장 검도훈련장을 아침저녁으로 일반인에게 개방하자는 의견을 내서 큰 수익을 내어 검도회 살림에 보탬이 되었던 게 큰 보람이었죠.”

검도를 훈련하면서 숨이 턱까지 차오르는 순간 ‘아, 내가 살아있구나!’를 생생히 느꼈다는 이승호 원로, 그날의 또렷한 기억과 그때의 희열 덕분에 43년 흔들림 없이 검도인의 길을 걸어온 게 아닐까 했다. 세상에 검도 고수는 많고 목계(木鷄)와 같은 부동심(不動心)의 경지에 이르기까지 아직 갈 길이 멀다며 겸양을 나타내는 이 원로, 나이에 구애받지 않고 끊임없이 배울 수 있고 도달하고픈 경지가 있으니 그것으로 족하다고 했다. 이승호 원로에게 생은 검도를 하기 전과 후로 나뉜다. 검도는 총만하게 차오르는 삶, 다시 태어나듯 매일 새로워지는 인생의 시작이었으니.





한국을 대표하는 근대5종 여전사로 불리는 정민아 선수,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2까지 배영이 주종목인 수영선수였다. 부산체육고등학교 재학 시절 조보성 감독의 권유로 근대5종으로 전환, 수영과 육상에 강세를 보인 그녀는 나가는 대회마다 눈부신 성과를 냈다.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근대5종 단체전에서 금메달, 2019년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개최된 2019 국제 근대5종연맹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우리나라 근대5종 여자 역사상 첫 메달을 따는 등 화려한 메달 질주를 선보이며 운동선수의 삶을 탄탄히 구축해온 정민아 선수, 그녀를 만났다.

interview #02

한국 근대5종 황금시대를 연 철인 여전사!

BNK저축은행 근대5종

정민아 선수



MODERN PENTATHLON

근대5종은 내 운명, 운동선수로 빛을 발하다

“워낙 어렸을 때부터 운동하는 걸 좋아하는 아이였어요. 유년시절 수영을 했는데 유소년 대표나 국가대표 상비군에 들 정도의 실력은 아니었고 학교 대표에 뽑힐 정도였죠. 두각을 나타내는 선수는 아니었지만 수영하는 게 참 즐거웠어요. 순전히 제가 좋아서 택한 운동이었으니까요. 부모님은 힘들면 관두라는 애길 자주 하셨죠. 운동 선수의 길이 쉽지 않으니까 늘 마음이 쓰이셨나 봐요.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서 부산체육고등학교 조보성 감독님의 권유로 근대5종으로 종목을 전환했는데 그 당시 여자선수가 전무했던 터라 선수육성 차원에서 바로 국가대표가 되었어요. 참 운이 좋은 편이었죠.”

근대5종으로 종목을 바꾼 뒤 정 선수가 처음 나간 대회는 2010년 4월 화장배 전국 근대5종경기대회 개인전, 놀랍게도 여자 릴레이에서 금메달을 목에 건다. 근대5종 선수로 전환한 뒤 내디딘 첫발은 순탄했다. 평소 훈련할 때 정 선수는 펜싱과 승마, 사격과 같은 기술 종목보다는 그녀가 강세를 보이는 수영과 육상 종목에 훈련 시간을 더 할애하는 편이라고 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5시 40분이면 시작되는 반복 훈련, 오전에는 수영과 승마 오후에는 펜싱과 육상 훈련이 이어진다. 훈련을 마치면 저녁 6시 가량, 매일 고강도의 훈련이 계속되다보니 주말만큼은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거나 음악을 들으며 온전한 ‘쉼’으로 재충전의 시간을 갖는다고.

“근대5종 선수들은 경상북도 문경에 위치한 국군체육부대에서 훈련을 해요. 수영장, 승마장, 레이저런(육상과 사격) 경기장이 이곳에 다 모여 있거든요. 저는 정말 운 좋게 고3이 되자마자 국가대표로 선발되었지만 지금은 국가대표로 선발되려면 치열한 경쟁은 필수예요. 계속 수영선수로 남았다면 제 이름 석자 기억해주는 이 없었을 텐데 근대5종으로 전환한 뒤 운동선수로서 제대로 빛을 발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런 의미에서 근대5종은 제게 운명과도 같죠.”

지나치리만큼 섬세한 몸 관리는 필수 요건



“2017년 8월 근대5종 세계선수권대회 릴레이에 출전해 말에서 떨어져 갈비뼈가 부러졌어요. 두 달도 채 쉬지 못하고 그해 10월 열린 전국체육대회에 참가했죠. 훈련도 제대로 못하는데다 복대를 하고 경기에 참가할 만큼 몸이 회복하지 못했던 터라 큰 기대도 없었어요. 가장 자신 없던 펜싱에서 다른 선수들보다 40초 먼저 경기를 끝내면서 예상치도 못한 금메달을 땀긴 했는데... 좋은 성과를 거둬 뭉뚱이 기뻐지만 갈비뼈 부상으로 찾아온 슬럼프는 오랜 시간 저를 괴롭혔어요. 부상 이후로 페이스를 잃고 허우적대는 느낌이랄까. 아마도 부상을 입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대회에 참가해 후유증이 더 크지 않았나 싶어요.”

그때의 경험치 덕분에 이후 과민하다 싶을 만큼 몸의 이상 신호에 집중했고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으러 병원을 찾았다는 정민아 선수, 후배들에게도 들려주고픈 얘기가 많았다.

“다치거나 아프면 참지 마세요. 참는 게 능사가 아니고 일을 더 키울 수 있으니까요. 쉬거나 적극적인 치료를 받아 몸의 컨디션을 회복하는 것만큼 운동선수에게 중요한 건 없어요. 저도 가벼운 부상이라고 여기고 하루나 이틀 쉬면 좋아지겠지 싶어 훈련을 계속했는데 결국 보름 넘게 몸져누운 적도 있고요. 뭉치거나 결린 부위가 있으면 폼롤러로 근육을 풀어주고 셀프마사지를 해주는데 그래도 좋아지지 않는다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죠. 운동선수에게는 몸이 재산인 셈인데, 내가 나를 잘 돌봐야죠.”



Profile

-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단체 금메달
- 2016년 아시아선수권 (개인전, 단체) 금메달, 계주 금메달
- 2017년 전국체육대회 (개인전, 단체) 금메달, 계주 동메달
- 2019년 UIPM 세계선수권대회 계주 동메달

철저한 몸 관리로 오랜 선수 생활 이어가길



정민아 선수보다 4살 위인 LH팀에 양수진 선수는 그녀의 롤모델. 근대5종 여자선수들의 은퇴 시기는 통상 20대 중후반이라는데 몸 관리를 철저히 해온 양 선수의 올해 나이가 무려 33세라니 올해 29세인 정 선수에게 양 선수는 늘 모범답안으로 통했다. 양 선수만큼은 아니더라도 가능하다면 선수생활을 길게 이어가고 싶다는 정 선수, 길게는 지도자의 삶도 계획 중이라서 필요한 자격증 취득에도 열심을 다해왔다.

“앞으로 이루고픈 목표는 전국체육대회 개인전에서 좋은 성과를 내는 것도 좋겠지만 여자선수 3명으로 이뤄진 단체팀으로 금메달을 따고 싶어요. 한국을 대표하는 근대5종 여자 최강팀으로 불리는 그날까지 매 순간 최선을 다해야죠.”

정민아 선수는 잘 안다. 자신에게 주어진 근대5종 여자선수로서의 삶이 길지 않음을. 그런 만큼 선수로 살아가는 오늘이 무척 귀하다. 인생의 클라이맥스를 향해 오늘도 부단히 새벽잠을 떨치고 훈련장으로 향한다. 그 누구보다 다부지고 굳건한 발걸음으로.

Mini Interview

강한 승부욕에 성실함은 기본!



조보성 감독
BNK저축은행
근대5종

“정민아 선수의 강점은 강한 승부욕이에요. 승부욕이 강할수록 경기에서 패배했을 때 쉽게 털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정 선수는 빨리 잊어버리는 편이죠. 마음에 오래 담아둘수록 자신에게 손해라는 걸 아는 거죠. 근대5종 선수에게 가장 필요한 역량은 뭐니 뭐니 해도 성실함이에요. 매일 새벽부터 저녁까지 5가지 종목은 반복 훈련해야 하는데 기본적인 성실함이 몸에 배어 있지 않으면 고된 훈련 과정을 이겨내지 못하고 중도 이탈하고 말아요. 오랜 시간 선수 생활을 순탄하게 이어오면서 값진 성과를 낸 것만 봐도 정민아 선수의 타고난 착실함은 충분히 엿볼 수 있지요.”

“앞으로 이루고픈 목표는
여자선수 3명으로
이뤄진 단체팀으로
금메달을 따고 싶어요.
한국을 대표하는 근대5종
여자 최강팀으로 불리는
그날까지 매 순간
최선을 다해야죠.”



던지고 치고 달리고 한 선수가 움직이면 다른 선수의 몸도 연동한다. 마치 다른 동작으로 동시에 춤을 추는 듯하다. 구도부산(球都釜山),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이 특히 많은 도시'라는 단어가 존재할 만큼 야구는 부산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스포츠다. 부산에 수백 개의 야구동호회 가운데 위드베이스볼은 2015년 창단, 2부에서만은 단연 선두자리를 지켜왔다. 2018년 부산광역시장배 슈퍼컵 야구대회에서 2위를 2019년 슈퍼컵 대회에서는 1위를 차지한 위드베이스볼, 흥미진진하고 매력 만점 스포츠에 빠진 이들은 오늘도 그라운드에 섰다.

interview #03

변수의 조합, 그래서 인생! 하고재비만 모였다!

2019 부산광역시장배 슈퍼컵 야구대회 1위

‘위드베이스볼’ 야구동호회



5년 동안 정규리그 우승, 목표를 향한 집념이 일군 성과

“1부에 속하는 야구동호회 슈퍼스타즈에서 활동하던 회원 몇몇이 의기투합해 2015년 위드베이스볼을 창단한 걸로 알아요. 창단멤버인 이승재, 정현우, 김동욱, 신준현 회원은 지금도 열심히 활동 중이고요. 저희는 100여 개의 팀이 속한 부산에서 제일 규모가 큰 야구연합회 O2리그 A클래스(2부) 정규리그에 참여하고 있죠. 매년 13게임 정도를 하는데, 지금까지 6승 3패로 4게임이 남았네요. 자랑할 만한 건 창단한 해부터 2019년까지 5년 동안 정규리그에서 우승을 해왔다는 거예요. 2부에서만은 정상을 지켜온 셈이죠.”

이준호 감독은 2016년부터 위드베이스볼과 연을 맺고 올해부터 감독을 맡았다. 그의 포지션은 1루수, 현재 프로골프선수이기도 하다. 워낙 어려서부터 좋아했던 스포츠가 야구라서 자연스럽게 야구동호회에 눈길이 갔고 하고재비(무슨 일이든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고 싶어 한다는 뜻)들만 모였다는 위드베이스볼에 합류한 것. 삼삼오오 모여서 개인 연습을 하고 O2리그 정규시즌이 시작되는 3월부터 한 달에 한 번 있는 경기에 참여한다. 야구는 9명이 뛰는 스포츠, 회원 모두가 경기에 참여할 수는 없는 터, 이 감독은 경기의 흐름을 파악하면서 적절한 때에 선수를 교체하는 센스를 발휘한다. 야구는 특히 팀플레이 운동이고 회원들의 사기 진작은 팀 분위기를 좌우할 만큼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실력이 출중한 몇몇 회원들의 ‘하이팅’만으로 매 경기가 잘 풀린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위드베이스볼에 속한 회원 모두의 열정과 승부욕이 더해졌을 때 승리의 기세는 오래 이어지기 마련이다. 이긴 게 확실한 경기에는 벤치를 오래 지켰던 회원들의 마음도 챙겨주려고 애쓰는 그다.

“
자랑할 만한 건 창단한 해부터 2019년까지
5년 동안 정규리그에서 우승을 해왔다는 거예요.
2부에서만은 정상을 지켜온 셈이죠.”

With Baseball



주요 수상 내역

- 2015~2019년 O2리그 A클래스(2부) 정규리그 우승 5회
- 2018년 부산광역시장배 슈퍼컵 야구대회 2위
- 2019년 부산광역시장배 슈퍼컵 야구대회 1위





일당백 회원들, 하고재비들의 불꽃 튀는 승부욕



“위드베이스볼 회원들의 직업군은 다양해요. 공무원도 있고 일반 사무직, 개인 사업에 이르기까지 말이죠. 공 스피드가 좋은 막내 노태훈 회원의 나이가 21세이고 제일 고령자인 정태운 회원이 53세인데 형님, 동생 사이로 격의 없이 지내고 있어요. 정태운 회원도 투수인데 연투(야구에서 한 투수가 두 경기 이상에 연속으로 등판하여 공을 던짐)가 가능할 만큼 체력과 실력을 겸비한 분이죠. 또 왕년에 쌍방울 레이더스 프로야구 선수였던 최정환 회원은 워낙 경험이 많다 보니 경기 판세를 잘 읽고 회원들의 기량을 체크하고 훈련법을 알려주는 등 저와 함께 위드베이스볼을 이끌어가는 든든한 지원군이자 안내자랄까요.”

회원 저마다 지닌 장점을 최대한 실력으로 끌어올리는 힘, 그게 바로 감독의 핵심 역할 아니겠냐는 이준호 감독, 일당백 회원들 덕분에 마음이 늘 든든하다는 그다. 2부에서 막강 팀으로 알려진 위드베이스볼은 2018년에 부산광역시장배 슈퍼컵 야구대회 2위에 이어 2019년 부산광역시장배 슈퍼컵 야구대회에서는 영예의 1위를 차지했다.

“슈퍼컵 대회는 2019년 10월 말에 시작해 11월 말까지 진행되었어요. 32강과 16강은 토, 일 시합을 했고 그 이후 시합은 일요일마다 진행되었죠. 매 경기 다 기억에 남지만 아무래도 마지막 결승전이 제일 짜릿했어요. 봉봉라이더스 팀과 붙어 7대0으로 이겼는데 초반부터 경기가 잘 풀린 셈이죠. 다들 사회인이다 보니 프로선수들처럼 평상시 몸을 훈련해온 게 아니니까 경기하면서 다치지 않는 걸 최우선으로 여기자고 늘 얘기를 하는데 막상 경기에 나가면 승부욕이 발동되는 게 당연지사(當然之事)라... 최대한 부상 없이 조심하면서 경기를 즐기자고 강조한답니다.”

창단멤버인 신준현 회원이 경기 중 십자인대 파열로 오랫동안 치료를 받았다는 얘길 들려주는 최정환 회원, 그만큼 일단 경기가 시작되면 위드베이스볼의 하고재비들의 불꽃 튀는 승부욕은 누구도 막기 힘들다고. 그가 속한 야구 동호회만 해도 10여 곳이 넘는다. 개인 사업을 운영하면서도 바쁜 시간을 쪼개 주말마다 그라운드를 찾는 건 식지 않은 야구 사랑 때문이다. 물론 과거 프로야구 선수였던 그의 지도를 바라는 동호회가 그만큼 많다는 반증이기도 할 테다.



솔한 변수 앞에서 최선의 경기, 최상의 축제를 펼치다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순간순간을 즐기는
위드베이스볼 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즐기는 자를 이길 수 없다고들 하잖아요. 승패를 떠나
매 순간 최선을 다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북돋우면서
활력 에너지를 생성하는 동호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위드베이스볼 회원들 대다수가 프로야구 선수만 아닐 뿐 왕년에 학교나 모임에서 ‘야구’로 한가락 했던 주역들, 하나둘 아픈 데 느는 나이에 접어들었지만 마음만큼은 펄펄 기세 넘치게 종일 그라운드를 누비며 공 하나에 웃고 우는 열혈 청춘들이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뉴욕양키스의 포수 요기베라의 명언을 떠올린다. 야구경기처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면 삶에서도 짜릿한 역전을 맞볼 거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픈 그들이다. 인생의 축소판이라고 불리는 야구, 공 하나하나에 담긴 솔한 변수 앞에서 의연하고 굳건하게 그들만의 최선의 경기와 최상의 축제를 펼치는 위드베이스볼 팀.

“내년에도 역시 O2리그에서 13번의 경기를 치를 겁니다. 올해 남은 경기를 잘 마무리해서 우승까지 하면 좋겠지만 늘 ‘정상’을 지킬 수만은 없겠죠.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순간순간을 즐기는 위드베이스볼 팀이길 바랍니다. 즐기는 자를 이길 수 없다고들 하잖아요. 승패를 떠나 매 순간 최선을 다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북돋우면서 활력 에너지를 생성하는 동호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가장으로서 평일에는 열심히 일하고 주말에는 잠시 내 안의 숨겨둔 열정에 빠지고 그 순간 얻은 힘으로 한 주를 보내는 게 아마 추어 동호회 분들의 마음 아닐까요. 한 사람의 열 걸음보다 열 사람의 한 걸음이 더 중요하다는 걸 위드베이스볼은 앞으로 과정과 결과로 증명할 겁니다.”

이준호 감독의 다부진 각오가 예상롭게 들리지 않았다. 위드베이스볼 팀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취미의 야구’가 아닌 꼭 해야만 하는 ‘당위의 야구’를 실천해왔기 때문이다. 한 치의 흔들림도 없이 위드베이스볼 팀이 탄탄하게 뿌리를 내린 건 회원 저마다 마음에서 차지하는 야구 사랑의 범위가 넓고 깊기 때문일 테다. 자발적인 아니 지나치다 못해 유별난 ‘야구 사랑’에서 출발한 위드베이스볼 팀, 그들의 향후 행보가 기대되는 이유다.

부산체육의 뉴 패러다임!

다시 날자 부산체육 RESTART!!

2020 부산체육 진흥 세미나 개최



부산광역시체육회는 지난 11월 13일(금) 부산광역시체육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다시 날자 부산체육 RE-START!!’라는 주제로 2020 부산 체육진흥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로 대회취소·연기 등 체육행사진행에 큰 문제를 겪고 있음에 굴하지 않고 현재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다면 앞으로 한 단계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장인화 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최근 코로나 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산체육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는 자리가 되었다.

HOT
ISSUE

부산체육이 나아갈 길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안민석 국회의원의 기조연설이 있었다. 우리나라는 비슷한 메달권의 나라에 비해 운동선수가 적은 편에 속함에도 불구하고 좋은 성적을 낸다. 이는 우리나라가 현재 전문체육 육성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출산율 감소로 인해 경쟁이 힘든 전문선수를 잘 권하지 않는 추세이다. 이에 전문체육만을 육성하는 형태가 지속되면 결국 전문체육 선수자원은 결국 고갈되고 말 것이다. 체육을 나무로 비유하자면 학교체육은 뿌리, 생활체육은 줄기, 전문체육은 열매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체육은 뿌리와 줄기는 부실하지만 열매는 풍성한 기형적인 형태를 가진 나무이다. 다른 선진국들은 뿌리와 줄기, 열매가 균형 잡힌 나무로 잘 발전해왔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역시 뿌리와 줄기가 되는 학교체육과 생활체육의 저변확대와 등롱선수들의 확대를 통해 전문선수가 고갈되지 않고 튼튼하게 선수들을 육성하여 앞으로 부산체육이 앞으로 잘 나아갈 수 있기를 강조했다.

융·복합시대에 맞는 학교·생활· 전문체육의 발전

섹션1은 융·복합시대에 맞는 학교·생활·전문체육발전의 육성방안을 주제로 김대희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선임연구원의 “우선 원활한 체육활동의 지속을 위해서는 법, 제도, 정책이 우선되고 바뀌어야 한다.”며 발제를 시작했다. 우리나라의 체육은 학교·생활·전문체육의 연계가 부족하다. 생활체육에서는 주관하는 각 부와 처가 다르다. 유아와 노인은 보건복지부 학생은 교육부 성인은 문화체육관광부가 맡고 있다. 이에 체육관련 정책은 성인위주로 이루어진다. 각 부, 처간의 협조와 협의가 힘든 실정하기에 체육계가 나서서 각각 다른 연령대의 체육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 학교체육에서 학교스포츠클럽은 종목의 연계 없이 단편적인 수업 위주로 진행된다. 이는 정상수업 시간 내 학교스포츠클럽과 방과 후 스포츠클럽이 가지는 종목의 연계성의 한계 때문이다.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전문체육연계 종목운명을 통해 학생들의 종목연계성을 확대한다면 조금 더 학교체육이 원활하게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전문체육에서 초등, 중, 고등, 대학교에서 실업으로 연계되는 종목이 51개 중 15개 밖에 되지 않는다. 이는 학교체육을 시작으로 전문체육으로 이어지기 힘든 상황을 보여주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다른 선진국들의 선수 육성방안을 벤치마킹하여 선수수급체계를 개선해 나가는 것이다. 학교운동부가 아닌 스포츠클럽을 통한 선수육성으로 이어지도록, 종목의 단절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 2020 부산체육 진흥 세미나를 통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현재
부산체육의 지표를 진단하고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뜨거운 논의가 이루어졌다. ”

모든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지역의 선수육성과 연계한 지역 중심의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종목을 지역 내 특성에 맞게 선수육성이 가능한 종목으로 운영을 유도해야 하고 단순히 전국체육대회에 출전하여 성적만을 위한 팀이 아닌 지역의 생활체육과 함께 하는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이 될 수 있다면 좋을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체육회, 종목단체가 연계하여 지역 특화된 종목 육성을 통한 지역중심의 선수육성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스포츠타운 관광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는 상승효과도 보게 될 것이며, 생활과 전문체육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내용으로 발제를 마쳤다.

이 후 토론에서 제대육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은 “시의회와 체육회간의 소통을 많이 늘려야 할 것”, 손승우 부산광역시교육청 장학관은 “스포츠클럽 위주의 선수육성시스템구축이 필요”, 김성겸 동서대학교 교수는 “기초지자체 및 종목단체의 연계를 통한 지역특화종목이 활성화 되어야 할 것”, 황경현 수영국민체육센터 센터장은 “양질의 스포츠 공급을 위해 우수한 지도자들의 처우 개선이 필요” 등의 주된 내용으로 토론이 이루어 져 앞으로 학교·생활·전문체육에 대한 문제 해결을 통해 부산체육이 앞으로 나아 갈 것으로 기대된다.

섹션2는 이재형 해양대학교 교수의 발제로 문을 열었다. 현재 스포츠현장은 코로나 19로 인한 세계보건기구(WHO)의 팬데믹 선포로 인해 메가스포츠 이벤트의 중단 및 취소로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인 손실과 선수들의 훈련이 어려움을 겪는 중이다. 이가 빨리 해소되면 좋겠지만 이제는 해소되지 않을 경우도 대비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개인위생은 물론 스포츠 관련 시설, 용품, 서비스업의 비대면 또는 비접촉 분야에 관심을 갖고 해양레포츠를 위한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해양레포츠는 부산사람과 많이 닮아 있다. 찰나의 시간에 느껴지는 쾌감을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표현한다. 그에 더불어 부산은 바다가 자리한 해양도시이다. 이러한 해양스포츠를 부산이 발전시키기 위해 시설, 용품, 서비스업이 타 지역에 비해 선진화 되어있어야 한다. 하지만 부산의 해양레포츠는 현재 해양레포츠를 위한 시설 및 장비, 교육환경이 해양수도라고 부르기에 부족한 실정이다. 이를 해결하려면 부산에 해양 메가스포츠 이벤트를 개최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다. 메가스포츠 이벤트를 유치하게 된다면 기반시설들을 짓고 그에 상응하는 산업들이 함께 발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리나 시설과 같은 해양레저스포츠 시설확장 계획을 통해 해양레저관광 거점도시 조성 또는 해양레포츠선수촌 신설 등을 이용한 시설업의 발달을 기대해 본다. 현재 해양 스포츠의 장비 역시 대부분을 해외에서 수입하여 사용한다. 이를 국산화 할 수 있도록 하여 생활 체육의 저변확대에 도움을 준다면 더 나은 해양레포츠 환경을 만드는데 일조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레포츠의 시설과 용품의 준비가 갖춰진다면 이제는 그것을 사용하기 위한 지식을 가져야한다. 부산이 해양도시인 만큼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초, 중등 교육에서 해양레포츠 종목을 배울 수 있는 등 교육 및 육성제도가 확립되어야 한다. 시설, 용품, 서비스업의 각 관리 부, 처에서 관



Busan Sports Council

리 담당하는 이 사안을 한 번에 관리할 수 있는 전문가 위주의 전담부서가 만들어져 의견을 한 번에 규합할 수 있다면 앞으로 부산의 해양레포츠가 더 발전해 나갈 것이라는 내용으로 발제를 하였다.

이후 토론에서 정성기 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단 단장은 “해양레포츠 발전을 위한 지자체의 전략적인 정책수립이 필요할 것”, 김진성 부산일보 스포츠팀 팀장은 “세계적인 국제요트대회인 볼보 오션레이스(Volo OceanRace), 아메리카컵(America's cup) 등의 적극적인 유치가 필요할 것”, 양위주 부경대학교 교수는 “용어에 대한 정의와 해당산업의 범위를 설정하여 산업분류를 하고 그에 상응하는 정책의 과학적 근거를 수립한다면 앞으로 부산의 해양레포츠가 더 발전 할 것”, 김미옥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선임연구원은 “해양레포츠 활성화를 위해 인프라를 넘어 지역특성을 고려한 시장중심의 콘텐츠와 이벤트의 유치를 해야 할 것” 등의 의견으로 부산의 해양레포츠에 대한 뜨거운 관심으로 토론이 이루어져 앞으로 부산의 해양레포츠가 더욱 더 발전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여진다.

2020 부산 체육진흥 세미나를 통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현재 부산체육의 지표를 진단하고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뜨거운 논의가 이루어 졌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모든 사안을 한 번에 해결 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앞으로 이런 자리를 많이 만들어 의견들을 잘 경청한다면 이를 통해 앞으로의 해결방안과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이를 통해 앞으로 코로나 19로 인해 무거워 졌던 부산체육이 다시 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미래 성장 동력,
부산해양레포츠
발전방안**



위 세미나 개최 동영상은 유튜브 '부산광역시체육회' 채널 혹은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http://sports.busan.kr/sub.php?menuparent=0005&menupos=4&board_code=gallery2&b_num=404)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설원을 나는 스키어

환상적인 질주의 도시, 평창



강추위에 움츠려드는 여느 도시와는 달리 겨울이면 더욱 활기가 도는 강원도 평창은 겨울이 길고 강설량이 많아 겨울 스포츠를 즐기기에 제격이다. 반짝반짝 빛나는 대자연의 아름다운 감동을 선사한다. 2018년 동계올림픽을 치르며 세계적인 도시로 떠오른 평창, 전 국민의 가슴에 뜨거운 감동을 안긴 평창에서 겨울의 즐거움을 만끽하고 눈부시게 빛나는 인생에 남을 사진과 함께 로맨틱한 추억을 만들어보자. 뛰어난 설질과 편리한 첨단시설을 갖춘 평창의 리조트와 스키장에서 짜릿한 겨울 스포츠는 덤이다.



Pyeongchang



Skier

평창, 덴마크식 라이프 스타일 구현하는 곳



태백산맥 중앙의 평창은 평균 고도가 700m로 높고, 바람이 많이 분다. 옷을 넉넉히 겹쳐 입고 바람이 불어오는 곳을 향해 가속 페달을 밟자. 하얀 설경(雪景)의 평창이 당신을 맞는다.

휘게(Hygge)란 편안하고 아늑한 상태를 말하는 덴마크식 라이프 스타일을 말한다. 겨울이 길고 곳은 날씨의 그들은 삶의 기쁨을 먼 곳이 아닌 가까운 곳에서 찾는다. 편안하고 소중한 사람들과 즐겁게 시간을 보내며 영양가 있는 먹거리를 찾고 향수에 젖어본다. 우리나라에서는 강원도 평창만큼 휘게 라이프가 어울리는 곳도 없을 것이다. 눈이 아주 많이 오기로 유명한 평창에서 뽀뽀할 수 없는 랜덤마크는 바로 스키점프대이다. 스키점프대는 아무 곳에서나 즐길 수 없기 때문에 더욱 특별하다. 알펜시아 스키점프대 내 메인 스타디움 2층에 있는 대관령 스키 역사관에는 스키의 역사와 발전과정, 전통스키 및 국제스키대회 입상자들의 장비와 상장, 상패 등을 전시 중이다. 또 모노레일을 타고 올라가면 아름다운 평창의 모습을 한눈에 볼 수도 있다. 평창은 아름다운 자연 풍경으로도 유명하다. 그만큼 자연을 보면서 즐길 수 있는 이색 체험들이 많다. 가족 여행을 간다면 아이들과 함께 승마 체험을 하고 곤돌라를 타고 발왕산 정상에 올라 아름다운 경관을 만끽해보는 것도 좋겠다.

스키에 필요한 장비와 필히 알아두면 좋을 팁

새 하얀 설원과 청명한 하늘 아래서 한 번이라도 스피드를 느껴봤으면 헤어 나오기 힘든 스포츠는 바로 '스키'다. 길고 평평한 활면에 구두나 장화를 붙인 것을 신고 눈 위를 활주한다. 아직 한 번도 스키를 타보지 않았다면 올 겨울 강원도 평창에 위치한 스키장으로 떠나보자. 색다른 재미를 찾을 수 있다. 스키는 장비를 이용한 운동이기 때문에 안전하고 재미있게 타려면 올바른 장비 선택이 중요하다. 스키 장비에는 스키 플레이트, 부츠, 장갑, 고글 등이 있다. 먼저 스키 플레이트는 길면 길수록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으며 짧을수록 안정성이 높다. 초보자라면 짧은 플레이트를, 상급 정도 수준의 스키어라면 자신의 신장보다 20cm 짧은 플레이트를 택하는 것이 좋다. 스키 플레이트만큼이나 스키 부츠도 중요하다. 스키에서 나타나는 안전사고의 유형의 대부분이 다리 골절 등인데 스키 부츠가 안전사고로부터 절반 이상을 보호해준다. 부츠는 자신의 발에 잘 맞고 무겁지 않은 게 좋다. 자신의 발에 맞는 사이즈를 확인하는 방법은 부츠를 신은 채 거울을 보고 똑바로 섰을 때 발가락이 앞 부츠 끝에 닿는다는 느낌이 왔다면 맞는 사이즈를 찾은 셈이다. 앞으로 몸을 굽힌 상태에서 발뒤꿈치와 부츠 뒤쪽으로 손가락이 하나 정도 들어가면 적

당하다. 이어 부츠가 발목을 잘 감싸고 있는지, 부드러운 재질을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스키복은 기온과 용도에 따라 맞춰 입어야 한다. 선수는 경기 종목별로 유니폼이 다르나 초보자와 일반 스키어는 지나치게 값비싼 복장을 피하고 실리적인 도움을 주는 복장이 좋겠다. 초보자는 많이 걷고 서 있는 시간이 길기에 특별히 여러 겹을 끼입는 방식으로 보온에 신경을 써야 한다. 스키 장갑은 손가락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을 정도의 크기가 좋다. 보온성이 뛰어난 것으로 가능한 가죽 제품을 선택하는 게 현명하다. 스키 고글도 반드시 끼야 한다. 설원에서 반사되는 자외선은 매우 강해 심하면 실명할 정도이기 때문에 고글을 착용해야 한다. 눈부시지 않은 날에 스키를 탈 때도 찬바람이 눈에 계속 닿기 때문에 보안용 고글은 반드시 필요하다.



자연스럽게 넘어지고 일어서기



스키는 잘 타는 것뿐만 아니라 잘 넘어지는 것도 중요하다. 넘어질 때 무리한 동작으로 버티지 말고 자연스럽게 넘어가야 한다. 엉덩이를 내밀고 무릎을 약간 구부려 뒤로 주저앉듯이 옆으로 넘어진다. 손이나 기타, 다른 부위를 이용해 지면과 접촉하면 염좌나 골절상을 입기 쉽다. 또 앞으로 넘어지거나 무릎, 얼굴부터 설면에 접촉하면 부상의 정도가 커진다. 넘어진 후 슬로프에 오래 누워 있거나 앉아 있으면 2차 충돌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기 쉽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일어나거나 슬로프 가장자리로 이동해 재정비를 해야 한다. 일어설 때는 폴을 너무 멀리 짚지 않도록 하고, 스키를 평행하게 두며 폴 라인과 스키가 수직이 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넘어진 채 양 스키를 산 정상과 수직이 되도록 위치하고 양손에 폴을 각각 쥐고 일어서는 방법이 있다. 엉덩이와 상체를 폴 라인의 위쪽에 두고 등 뒤로 폴을 짚고 일어서면 된다. 체중이 무겁다면 두 개의 폴을 함께 모아 쥐고 옆으로 짚으며 일어서면 좋다.



평창의 No.1 리조트 & 스키장

알펜시아리조트

올림픽의 핵심 기능을 수행한 곳 중 하나다. 스키장은 물론 스키점프대, 바이애슬론경기장, 크로스컨트리와 노르딕복합경기장, 봅슬레이 등의 경기가 펼쳐진 슬라이딩센터 등 다양한 올림픽 유산이 알펜시아리조트와 그 주변에 가득하다.

휘닉스 평창

스키어들에게 최고로 손꼽히는 슬로프를 자랑한다. 태기산의 지형을 그대로 살린 채 시원하게 펼쳐지는 슬로프가 특징. 프리스타일 스키와 스노보드 공식 경기장을 갖춘 만큼 수준급의 시설을 자랑한다.

용평리조트

대관령 근처, 발왕산 자락에 자리한 대한민국 최초의 스키장이자 국내 최대 규모의 스키장이다. 용평리조트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알파인 스키 경기가 진행될 정도로 국제 규격에 맞는 슬로프 시설을 갖춘 스키장이다. 무려 28개의 슬로프가 다양한 방향으로 뻗어 나가서 초보자부터 상급자까지 골라 즐기는 재미가 쏠쏠하다.



SPECIAL + 01

서부산 지역 특화, 해양스포츠 활성화 전략

동서대학교 운동처방학과
김성겸 교수

부산의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서부산 해양스포츠 발전 가능성

부산 다대포해수욕장에서 잊지 못할 장면이 하나 있다. 모래사장에서는 이동식 승마업체가 와서 사람들이 승마를 타고, 바다에서는 역동적인 카이트보딩(Kite boarding)과 SUP(Stand Up Paddle board)를 많은 사람들이 즐기고 있었다. 해수욕장 뒤편 공원에는 여유롭게 산책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말, 카이트보딩, SUP, 모래 놀이하는 어린이들, 산책하는 사람들 등 외국의 유명 휴양지에서도 쉽게 볼 수 없는 장관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활짝 웃으며 사진 촬영하던 모습은 지금도 기억이 생생하다. 부산의 자연환경이 아름답게 표현되던 행복한 기억이다. 많은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이런 행복감을 느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했다.

부산에서는 다양한 동력, 무동력 해양스포츠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동력을 이용한 해양스포츠는 수영만 요트경기장, 해운대, 광안리, 송도, 북항 마리나 사업 등을 중심으로 한다면, 무동력 해양스포츠는 송정 서핑, 광안리 SUP, 수영강 드래곤보트, 서낙동강 조정 및 카누, 다대포 지역 등을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다. 송정을 제외하면 일반 시민들과 관광객의 참여가 아쉬운 게 현실이다. 부산 자연환경에 적합하고 발전가능성이 높은 해양스포츠에 대한 관심과 참여자 증대가 필요한 시기이다.



“다대포해수욕장과 서낙동강지역 등은 카약, 조정, SUP, 카이트보딩 등 무동력 해양스포츠 종목을 발전시키기에 좋은 환경이다.”

무동력 해양스포츠 중에서 카이트보딩과 SUP 등은 올림픽 종목 채택 가능성이 오래전부터 있었고 생활체육 활성화 가능성이 높은 종목으로 인식되어 왔다. 부산에서도 종목별 활성화를 위해 많은 관계자들이 노력 중이다. 그 중에서도 서부산 지역은 무동력 해양스포츠 활성화의 좋은 조건을 갖고 있다. 다대포해수욕장과 서낙동강 지역 등은 카약, 조정, SUP, 카이트보딩 등 무동력 해양스포츠 종목을 발전시키기에 좋은 환경이다. 그리고 낙동강 하구언을 편하게 오가도록 하려는 노력이 많은데, 성사만 된다면 낙동강 하류와 다대포 지역은 무동력 해양스포츠의 전국 중심지로 성장할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이를 위해 엘리트스포츠와 생활체육을 함께 아우를 수 있는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그리고 여러 가지 법률적 제한과 어촌계와의 협의 등 다양한 난제가 있지만,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무동력 해양스포츠 미래 발전 예측: 카이트보딩, SUP

서부산 지역 무동력 해양스포츠에 적합한 여러 종목 중에서 2개 종목의 사례를 들고자 한다. 먼저 카이트보딩은 카이트(kite)와 보드(board)를 이용해 물 위를 질주하거나 아크로바틱 한 동작과 하이 점프 기술 등에 매료되는 자연친화적 스포츠이다. 카이트보딩은 젊은 감각의 역동적이고 화려한 매력을 가지고 있으며 유럽, 북미, 남미, 동남아시아 등에서 인기가 높아 빠르게 성장 중인 종목이다.

최근 IOC(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가 젊은 세대들을 올림픽으로 유인하기 위한 전략적 종목 중 하나이다. 덕분에 국제 요트연맹(World Sailing)은 2024년 파리올림픽에 요트(Sailing) 경기 10개 세부종목 중 하나로 카이트보딩을 채택했다. 한국카이트보딩협회는 국제카이트보딩협회(International Kiteboarding Association)의 정식 회원으로 2019년 승인을 받았다.

국내 카이트보딩은 전국적으로 강원도, 제주도, 부산, 남해, 서해안, 서울 한강 등에서 활동 범위를 넓혀가고 있으며 커다란 잠재력을 갖고 있어 비약적인 성장이 기대된다. 부산 다대포 해수욕장 일대에서는 2008년부터 매년 부산광역시장배 전국 카이트보딩 대회가 개최되고 있다. 전국 엘리트 선수와 동호인, 관계자 등이 참가해 9개 종목(스피드, 행 타임, 프리 스타일, 단체 경기 등)에서 경쟁하며 부대행사로 다양한 해양스포츠를 체험하도록 운영하고 있다. 엘리트스포츠와 생활체육이 함께하는 대회로서 참여자 증대와 대회 운영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지원과 발전계획이 필요하다. 장기적으로는 국제적 대회로서의 성장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SUP는 보드 위에서 패들을 젓는 해양스포츠 종목이다. 안전한 언택트(Untact) 해양스포츠로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TV광고와 광안리해수욕장의 'SUPrise 스포츠관광 특화사업' 등으로 부산시민들에게 잘 알려져 있다. SUP는 다양한 분야와의 연계운영이 탁월한 종목이다. SUP 요가, SUP 피싱, SUP 퍼레이드, SUP 오션클리닝, SUP 레이싱, 전문자격과정 운영 등 확장성이 좋은 특징을 갖고 있다. 강과 바다 등의 비교적 물결이 잔잔한 곳

에서 탈 수 있기 때문에 부산 지역 특화 종목으로 양성하면 좋은 종목이다. 배우기 쉽다는 장점을 갖고 있어 체험형 스포츠부터 전문 엘리트 선수 영역까지 다양하게 발전시킬 수 있다.

그리고 SUP는 2020년 국제대회 운영권에 대한 스포츠 중재재판소(CAS)의 결정 판결이 나오면서 발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제적 종목 협회 간의 분쟁은 그만큼 SUP의 올림픽 정식종목 채택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생활체육과 엘리트스포츠, 레저관광 영역까지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종목이라고 볼 수 있다.



STAND UP PADDLE BOARD

산학관 공동의 서부산 해양스포츠 발전 전략 필요

부산이 해양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려면 많은 지역에서 다양한 종류의 레저 활동이 필요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서부산 지역은 공항과 철도역에서 가까워 관광객 유치에 유리하고 강서구 명지 신도시의 성장 등으로 젊은 인구 유입이 크게 늘고 있다. 리버마리나 사업 추진, 서낙동강 레저스포츠 시설 확충 계획 등이 연계되어 추진된다면 더 좋은 환경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부산시 강서구 에코델타시티는 친환경 수상도시를 표방하고 있는데 카약, SUP, 레저용 소형 보트 등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처럼 서부산 지역 해양스포츠 발전의 요건들이 충족돼 가고 있다. 지금은 장기적 계획을 세우고 기초자치단체를 포함한 산학관이 공동으로 발전, 노력을 기울일 시기이다.



KITE BOARDING



시민 참여환경 조성 및 콘텐츠 개발 필요

해양스포츠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시장 수요자인 시민들의 해양스포츠 참여와 소비 촉진 참여환경 조성이 가장 중요하다. 시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해양스포츠에 참여할 수 있는 물리적·공간적 환경 및 프로그램과 소프트웨어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해양스포츠 참여환경 조성은 시민들의 해양스포츠 참여를 쉽게 해 국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 또 지역경제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도 크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의 '레저스포츠 시장 : 수요자 중심 참여환경 및 사업화 활성화 방안' 결과를 보면 일상적인 레저스포츠 참여 시장(비이벤트 시장)이 레저스포츠 시장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99.4%(6.1조 원)일 정도로 시장 비중이 월등히 높다. 또 식음료, 교통, 연료비 지출 등 레저스포츠 참여로 인해 발생하는 파생시장 규모도 매우 크다. 레저스포츠 시장에서 수요자인 일반 국민들의 레저스포츠 활동과 소비 활성화를 위해서는 레저스포츠 수요자들이 레저스포츠에 참여하게 되는 단계별 참여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부산의 수요자를 위한 해양스포츠 참여환경은 아직 초기 단계이다. 종목별 정보, 체육시설, 지도자, 스포츠클럽, 리그 및 대회 등의 단계별·체계적인 참여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SPECIAL + 02

해양자치권 확보와 해양레저사업 과거 사례의 교훈

부산경남미래정책
안일규 사무처장

Marine Capital Busan



'해양수도'는 살려 나가야 할 슬로건, 적절한 해양자치권 확보 필요

부산광역시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시민이 행복한 동북아 해양수도 부산”이라 돼 있다. 부산시가 오랫동안 내걸고 있는 ‘해양수도’ 슬로건은 법적 근거 없는 명목적인데 그치고 있다. 부산 특유의 자연환경을 살리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지만 앞으로 살려 나가야 할 슬로건이다. 부산에 소재하고 있지만 정부 공기업인 부산항만공사(BPA)는 지방 공기업으로의 이양이란 근본적인 문제해결로 나가기도 전에 그들의 사업추진이 부산의 이익과 반대로 나가는 경우도 허다하다. 금융 중심지 부산을 내걸고 있지만 해양금융과 관련된 공공기관은 부산에 없다.

공공성 확보 논란이 된 북항 재개발 1, 2단계는 해양수산부와 부산항만공사의 주도 아래 이뤄지고 있다. 항만 재개발 사업 시행 권한이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부산시와 연구기관, 민간 측에서는 부산지역 내 해양레저 활성화를 주장하고 있지만 내수면은 하천·호수로 지자체가 관리하고 바다는 해양경찰이 따로 관리해 부산시 관리 권한 밖에 있다. 부산 앞바다이지만 유람선 하나도 마음대로 못 띄우게끔 되어 있는 ‘유선 및 도선 사업법’ 개정이 필요하다.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해양자치권 확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2019년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부산지역 해양산업 관련 산업체 약 2만7,000개, 종사자 약 15만4,000여 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해양자치권 확보는 15만에 달하는 부산 시민을 위한 정책이기도 하지만 이들로 인해 직간접 파급효과를 도모하는 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무작정 해양자치권이라는 미명 아래 검증되지 않은 민간 해양레저사업을 할 수 있게 하는 법적·행정적 권한은 부여하지 않아야 한다. 이번 글에서는 부산지역의 해양레저특화 민간공모사업 중 대표적인 실패 사례를 들여다보면서 해양레저 활성화에 있어 반복하지 말아야 할 지점과 공익성을 확보하기 위해 어떤 부분들을 챙겨야 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
충분한 사업 검토와
공론화 과정을 통해
느리더라도 확실하게 사업을
추진해야 부산만의
특화된 해양레저분야
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이다.”

M A R I N E L E I S U R E

동백섬 등 해운대 일대 4개 사업 실패 사례 향후 추진사업은 공익성 담보 받아야

해운대 일대에 2004년 9월 시행된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 의거 규제 특례를 적용받아 해양레저 기반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2005년 2월 당시 재정경제부로부터 '해운대 컨벤션·영상·해양레저특구로 최초 지정받은 바 있다. 2007년 '지역특화발전특구 기본 및 집행계획 용역'과 단위사업 세부계획 변경 후 최종 4개 사업이 추진됐는데 수영강변 계류장 사업, 동백섬주변 해양레저 기지, 송정해수욕장 해양레저 기점, 해양레저컨트롤하우스로 나타났다. 이들 사업은 여러 문제를 드러냈다. 하나같이 사업자의 요구에 따라 별다른 자문·심의절차 없이 개별법령에 따라 변경을 승인했다. 해양레저사업과 수익사업의 비율에 대한 명문화된 근거 규정이 없었다. 사업계획 변경에서도 사업비 자금조달계획 등에 대한 자금력 검증 미흡, 위원회 등 사전 자문절차 없이 개별법령에 의한 추진을 하여 사업의 특수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문제를 야기했다. 이로 인해 수익을 일부 보전해 주는 측면에서 들어간 일부 수익사업이 변질되어 수익시설 비율을 과도하게 책정하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2015년 해운대구의회 해양레저특화 민간공모사업 특별위원회의 지적 이후 해양레저사업 비율을 4개 사업장 모두 60% 이상 유지,

조정(수익사업 40% 이하)하도록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시정되지 않고 있는 대표적인 사업이 '동백섬 주변 해양레저기지'다. 동백섬 주변 해양레저 기지는 특구계획 변경 승인 시 전체 규모 연면적 5,641㎡ 중 수익시설 규모 667㎡(일반음식점)이었으나 최종 변경 후 연면적 7,685㎡로 늘어나고 수익시설 규모도 1,760㎡로 늘었다. 동백섬 주변 해양레저기지의 일반음식점은 '더베이101'로 부산시민들에게 유명하지만 해양레저특화 특구사업으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민간주도 해양레저사업을 본연의 모습으로 안착시키기 어려운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동백섬 주변 해양레저기지는 정온 수영이 아니어서 향후 마리나로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한다면 방파제를 설치해야 한다. 파고가 높은 지역이라 마리나로서 부적합한 곳에 해양레저시설을 추진한 사례다. 잘못된 연구용역으로 인해 마리나 사업을 추진한 결과로 귀결된 것이다.

더베이101로 변질된 운촌마리나는 향후 해양레저사업 추진에 있어 민간으로 추진하더라도 상업시설을 부속시설로 넣는 것은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해양레저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게끔 만들기 위해 부산시는 물론이며 스포츠계·시민사회 등이 공적으로 개입해야 한다.

그 외 세 사업은 공유수면 점·사용료 등 체납, 자금 부족, 건축 중단, 해운대구와의 행정소송 등을 불러왔다. 무리한 사업 규모의 증가로 인한 자금 부족 등이 주된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해양레저사업에 있어 예측 불가능한 자연재해 대비해서 환경 훼손도 없어야 할 것이다. 운촌마리나 사업이 확대를 추진하자 인근 주민들과 시민단체로부터 문화재보호구역 훼손과 방파제 확대로 인한 환경 훼손 논란이 재점화돼 사실상 합리적인 해양레저사업을 추진할 수 없게 됐다.

부산시와 부산시체육회에 바라는 정책 방향

해양레저는 해역뿐만 아니라 육역에서 진행되는 활동도 포함한다. 다시 말해 부산 관내 관광소비까지 내다보는 스포츠로서 해양레저와 관광전략을 결합한 정책을 부산시와 부산시체육회, 부산관광공사 등의 협업 및 융합으로 만들어야 할 때다. 부산시와 부산시체육회 등은 해양레저사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찬성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사업 하나하나를 곱씹어봐야 할 것이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산업, 사회·문화 전반에 급속한 변화를 가져옴에 따라 모두가 한목소리

로 위드 코로나 또는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대처의 중요성이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 위드 코로나 또는 포스트 코로나 국면에서 과거 해운대구의 4개 사업처럼 제대로 된 사업 검토 없이 잘못된 해양레저사업을 추진하면 그로 인한 손해는 부산시민과 부산시로 귀결된다. 충분한 사업 검토와 공론화 과정을 통해 느리더라도 확실하게 사업을 추진해야 부산만의 특화된 해양레저분야 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이다.

해양자치권을 확보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부산시와 부산시체육회 등 해양레저사업을 공적으로 부산시민들의 레저 향유권을 누리게 하면서 산업화하고자 하는 이들의 능력을 배양하는 데 있다. 기본적으로 사업권을 부여하는 자가 사업권을 받는 자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지 못하는 이상 사업권을 준 뒤 '을'로 전락하기 마련이다. 바다를 끼고 있는 부산으로서는 앞으로 활성화해야 하는 산업 중 하나가 해양레저 분야라는 점은 어느 누구도 부정하지 않는다. 다만 과거 실패 사례를 검토하면서 공익성과 환경보호라는 전제 조건이 붙는다. 산업으로서의 발전을 위해 합리적인 지점을 찾아야 할 때다. 이제 지역 차원의 민·관 사회적 합의가 절실히 필요한 때다.



ISSUE & FOCUS

01

2020 생활체육지도자 인권·실기교육 개최

16개 구·군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 117명
(일반지도자 73명, 어르신지도자 44명) 참가

부산광역시체육회가 생활체육지도자 역량강화에 팔을 걷어 붙였다. 부산광역시체육회는 지난 10월 14일(수) 부산관광공사 아르피나에서 체육계폭력재발방지 및 인권보호 교육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체육환경 조성 및 실기교육을 통한 지도자 역량 향상을 목표로 2020 생활체육지도자 인권·실기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교육에는 부산광역시 16개 구·군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 117명이 참석해 생활체육지도자의 전문성과 실무능력 배양을 위한 스포츠 인권교육, 뉴스포츠 관련 실기교육, 지도자 행정교육 등을 실시하고 생활체육지도자를 연차별로 분반해 간담회도 실시했다.

부산시체육회 장인화 회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생활체육지도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인권의식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우리 모두 건전하고 공정한 체육문화를 만들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부터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자”고 당부했다. 그리고 앞으로도 매년 인권실태 조사를 실시해 현장에 있는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의견을 듣도록 노력하겠다는 의견도 내비쳤다. 부산광역시체육회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연기되고 움츠려든 일상생활에 생활체육지도자를 교육함으로써 부산시민들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스포츠를 통한 건전한 여가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앞장설 계획이다.

생활체육지도자 인권·실기교육
10. 14.(수) 10:00 ● 장소 : 아르피나 ● 주최 : 부산광역시체육회 ● 후원 : 국민체육진흥공단, ...



2020 생활체육지도자 인권·실기교육
● 일시 : 2020. 10. 14.(수) 10:00 ● 장소 : 아르피나 ● 주최 : 부산광역시체육회 ● 후원 : 국민체육진흥공단, 대한체육회



ISSUE & FOCUS

02

부산광역시체육회와 (재)우성스포츠재단 장학지원 협약 및 장학금 수여식

장기적으로 부산체육 미래 발전에 이바지하는 행사 만들 터

부산광역시체육회는 지난 10월 30일(금) (재)우성스포츠재단과 장학지원 협약을 체결하고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했다. 비인기 기초종목 육성과 어려운 환경에서도 운동을 하는 학생선수 지원을 위해 부산광역시체육회와 (재)우성스포츠재단은 협약을 통해 매년 체육장학생을 선발해 장학금을 지원하기로 했으며 올해 70명의 초·중·고 선수에게 100만 원씩 총 7,0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부산광역시체육회 장인화 회장은 “부산체육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학생선수장학금 지원에 감사드리다”며 (재)우성스포츠재단에 감사의 뜻을 밝혔으며 “이번 장학금을 통해 선수들의 열정과 노력에 보탬이 되기를 바라며 학생선수들의 꿈과 희망에 한걸음 더 다가갈 수 있도록 무한한 성취와 발전이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전했다.

(재)우성스포츠재단 정한식 이사장은 “다양한 스포츠대회를 통해 아마추어 선수들에 대한 출전 기회 제공과 학교체육 시설 개·보수 및 장비 지원을 통해 부산체육 발전에 도움이 되고자 준비 중”이라는 재단의 계획을 밝혔다. 또한 장학생들에게 “부산스포츠의 미래를 위해 훌륭한 인성을 갖춰 팀과 동료들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주기를 바라며 재단이 함께 응원한다”고 전했다.

이에 덧붙여 “코로나19라는 애기치 않은 상황을 맞아 우리 미래세대 청소년들이 힘들어 하는 와중에 선배로서 작은 힘이라도 되어 주는 게 옳다고 여겼다”면서 “이 행사가 일회성이 아닌 장기적으로 부산광역시체육회와 (재)우성스포츠재단이 함께 손잡고 진행토록 해서 학생선수들이 부산광역시를 대표하는 얼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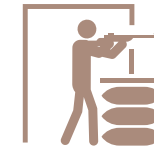
47년 역사를 자랑하는 부산 최초의 실탄사격장

부산광역시종합사격장



멘탈 스포츠로 대명사로 불리는 사격, 과녁을 향해 집중하는 10초 정도의 짧은 순간 느끼는 짜릿함과 정중앙을 맞혔을 때의 쾌감은 사격을 해 본 사람만이 안다. 부산의 명소인 영도 태종대공원을 경유하는 인접지에 위치한 부산광역시종합사격장은 부산 최초의 실탄 사격장이다. 사격장 뒤로는 봉래산 자락과 앞으로는 탁 트인 바다가 조화를 이루며 절경을 자랑한다. 지난 47년 동안 이곳에서 사격선수들은 땀과 눈물을 흘리며 저마다의 꿈을 향해 질주했다. 한국 사격 역사와 궤를 같이 한다 해도 과언이 아닌 부산광역시종합사격장을 찾았다.

상시 혹은 수시로 훈련 중인 40여 명의 사격선수들



건물 1층에는 안내데스크 겸 실탄과 총을 보관하는 사무실과 일반인들이 사격체험을 맞볼 수 있는 관광사격장이 2층에는 30개의 사대를 갖춘 실내 10m 공기총 사격선수 훈련장이 있다. 건물 밖에는 부지 4,860㎡에 50m 실탄사격장을 갖춰 놓고 부산사격대표팀의 훈련장과 사격대회 경기장으로 이용 중이다. 중·고등부와 대학부, 부산광역시청과 부산광역시체육회 실업팀과 부산장애인사격연맹 등 40여 명의 사격선수들이 상시 혹은 수시로 훈련 중이다.

1973년 설립돼 올해 47년차를 맞은 부산광역시종합사격장은 매년 건물 안전진단을 받고 2년 마다 페인트칠과 같은 보수를 꼼꼼히 해온 터라 오랜 역사를 지닌 건물임에도 관리가 잘 돼 있었다. 오전 9시에 문을 열어 저녁 8시에 닫는 이곳에서 짧게는 3시간에서 길게는 7시간 이상씩 사격 훈련에 혼신을 다하는 선수들, 그들 중 이름만 들어도 알 법한 국가대표 사격선수 '사격의 신'이라 불리는 진종오 선수와 김장미 선수 역시 이곳에서 훈련했다.

BUSAN YOUNGDO SHOOTING CLUB

사격선수들의 진심과 열심, 눈물과 기쁨을 품은 열정 훈련장



사격장의 특성상 허가가 나기까지 다른 시설에 비해 좀 복잡하고 오래 걸리는 편인데 총기와 실탄을 다루기 때문이다. 아무래도 총을 쏠 때 소음이 발생하다 보니 주변에 민가가 없어야 하고 그래서인지 다른 지역을 봐도 사격장 위치가 산 속과 같은 외진 곳에 위치한 경우가 많다. 최근 지어진 사격장에 비하면 규모나 시설 면에서 최신식은 아니지만 국제대회를 앞둔 선수들이 훈련하는데 큰 불편함은 없다. 부산 사격선수들이 저마다의 꿈을 이루기 위한 사격훈련장으로 부산광역시종합사격장은 제 몫을 톡톡히 해 왔다.

부산광역시종합사격장은 부산광역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 나온 주무관 1명과 청원경찰 4명이 교대로 총과 실탄을 관리하며 근무 중이다. 지난 47년간 목표한 꿈에 한발 더 다가가려고 부단히 애써온 사격선수들의 눈물과 땀방울이 고스란히 축적돼 있는 부산광역시종합사격장은 앞으로도 그들의 진심과 열심을 고스란히 품은 열정의 훈련장으로 불릴 테다.



만성피로 극복하는 슬기로운 방법

만성피로는 특별한 원인 없이 무기력과 피곤함이 6개월 이상 지속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피로감은 휴식을 취해도 나아지지 않으며 개인적, 사회적 활동에 영향을 끼친다. 기운이 없고 쉽게 지치며 다른 일에도 무관심해지는 증상이 지속된다면 만성피로를 의심해야 한다. 현대인의 적 만성 피로, 무엇이 원인이며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CHRONIC FATIGUE

무기력을 불러오는 일상적인 피로감



피로감은 일상생활에서 흔히 경험하는 증상으로 대부분 휴식으로 개선되지만 그렇지 않을 때 문제가 발생한다. 피로는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신체적 혹은 정신적으로 지치거나 약해진 상태를 말한다. 원인에 관계없이 피로 증상이 6개월 이상 지속되거나 반복되는 경우를 '만성피로'라고 한다. 흔히 피로를 느낄 때는 기운이 없고 쉽게 지치며 기력이 없어지고, 다른 일에 무관심해진다. 피로감이 지속될 때 먼저 일상생활에서 지속적인 피로감을 유발하는 원인이 없는지 확인해야 하는데 가장 흔한 원인

은 과도한 업무가 지속되는 경우이다. 이때 과로가 여러 날 지속된 경우 1~2일 휴식으로 회복되지 않고 여러 날 휴식이 필요하기도 하다. 불규칙한 생활습관이 문제가 되기도 하는데 잠자는 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이다. 이때 잠들기 시작하는 시간과 무관하게 일어나는 시간을 정해서 실천하면 도움이 된다. 또한 갑자기 체중이 많이 증가한 경우에도 피로감을 호소하기도 한다. 휴식을 취했음에도 피로감이 호전되지 않을 때 피로의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게 필요하다.

삶을 피폐하게 하는 수면장애와 우울증



피로감을 호소하며 병원을 찾는 많은 사람들에게 수면장애와 우울증이 있다. 수면무호흡증, 기면증 등 다양한 수면장애가 있고 본인이 자신의 증상을 잘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속되는 피로감으로 병원을 찾게 된다. 자신의 수면 상태를 잘 아는 가족과 함께 병원을 내원하는 것이 빠른 진단을 할 수 있다. 또한 질병이 없더라도 잘못된 수면 패턴이 피로감 유발을 할 수 있으므로 수면장애에 대한 평가는 필요할 수 있다. 우울증은 비교적 흔한 질환(유병률 4.4%, 015 WHO reports)으로 피로감의 흔한 원인이다. 이때 식욕저하와 체중감소, 불면, 의욕 저하, 우울감, 자책감 등 다양한 증상이 동반될 수 있지만 증상의 스펙트럼이 넓기 때문에 의료진과 상담이 필요하다. 피로감은 그 외에도 다른 증상이 동반되기도 하는데 피로의 원인질환이 있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발열, 기침, 호흡곤란, 체중감소, 두통 등이 있다면 질병이 있을

가능성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의료진 상담과 함께 적절한 검사로 피로의 원인을 찾는 게 필요하다. 또한 우울증이나 불안, 혹은 정서적 스트레스에 의해 피로감이 유발될 수 있으므로 정서장애에 대한 평가도 필요할 수 있다. 이처럼 다양한 질환이 만성피로의 원인 질환이 될 수 있으므로 자신의 피로를 혼자 자가 진단해 임의로 피로의 원인을 결정하는 것은 피해야 하며, 항상 자신을 잘 아는 주치의와 상담해서 필요하다면 진찰과 적절한 검사를 받아 보는 게 중요하다. 만성피로를 유발하는 질환 중 하나는 만성피로증후군이다. 만성피로증후군은 1994년 진단기준이 정리된 질환으로 설명할 수 없는 만성피로와 함께 인후통, 근육통, 집중력 장애 등 다양한 증상이 발생하는 것이다. 만성피로증후군은 섬유근통증후군 등 유사 질환이 많고 쉽게 회복되지 않고 전문적인 치료도 필요하기 때문에 의료진과 상담하는 것이 좋다.

“
질환과 상관없는 만성피로의 경우
일상생활에서 피로 예방을 위한 적절한
생활습관 교정과 휴식이 중요하다.”



일상에서 피로를 푸는 생활습관의 중요성



일반적으로 만성피로의 가장 효과적인 치료법은 진단된 각 질환에 대한 전문적 치료를 받는 것이다. 다만 질환과 상관없는 만성피로의 경우 일상생활에서 피로 예방을 위한 적절한 생활습관 교정이 중요하다. 가장 중요한 피로감의 회복 방법은 휴식이다. 그러나 적절한 방법으로 휴식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예를 들어 휴식을 위해 여행을 가는 것이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제대로 된 휴식을 방해할 수 있는데 특히 육체적 피로가 큰 경우 여행은 적합하지 않은 휴식 방법이다. 일반적인 피로 예방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평소 1주일에 3회 이상, 적어도 30분 이상 규칙적인 운동을 한다. ②금연한다. ③음주를 줄인다.(1일 평균 음주량은 남성은 2잔 이하, 여성은 1잔 이하) ④가능한 카페인(커피 등) 섭취를 줄인다. ⑤적절한 체중을 유지한다. ⑥충분한 수면을 취한다. ⑦균형 잡힌 식사를 한다.(과식은 피하고 비타민과 미네랄을 충분히 섭취) ⑧평소 업무량의 조절과 효율적인 시간 계획으로 충분히 휴식을 취한다. ⑨긍정적인 스트레스 대처법을 배운다.(매일 쉽게 할 수 있는 이완 운동 및 심호흡법, 긍정적인 경험에 의한 연상 훈련,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친구와 가족들과 대화하고 도움을 요청) ⑩습관성 약물(진통제, 신경안정제, 마약 등)의 사용을 피한다. 만성피로증후군의 경우 치료가 쉽지 않다. 만성피로증후군에 대한 치료 중 다양한 방법이 시도되었지만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치료는 점진적 저강도 운동 등 몇 가지이다. 전문가와 상의해서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치료 방법을 시도하는 게 좋다.

* 출처 :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소식 11호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 가정의학과 이연숙 교수



피로야 게 섰거라! 활력 쑹쑹 차차차~



노화방지와 골다공증에 좋은 국화차

민들레에는 다양한 항산화제 성분들이 들어 있어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이노작용을 촉진해 고혈압, 당뇨병, 암, 변비 등 질병과 노화방지에 도움이 된다. 칼슘과 비타민C 성분이 있어 골다공증 환자뿐 아니라 성장기 아이가 마셔도 좋은 차 중 하나이다. 또한 필수아미노산이 풍부해 피로회복에 좋은 음식 차라고 할 수 있다.



원기를 도우며 숙취에 좋은 꿀차

동의보감에 따르면 꿀은 오장을 편안하게 하고 원기를 도우며 위장을 튼튼하게 해준다고 한다. 체력을 증진시키고 피로회복에 좋으며 피부가 거칠어지거나 노화되는 걸 방지해주며 숙취 혹은 목이 아프거나 한기가 들 때에도 좋다.



면역력을 길러주고, 혈액순환을 돕는 동글레차

동글레 뿌리에는 사포닌 성분이 있어 신진대사를 높여주고 면역력을 길러주며 기력 회복에 좋다. 또 혈액순환을 촉진시켜 기미나 다크써클, 두통, 어지럼증, 당뇨병 등에도 좋은 차다. 항산화작용으로 피부노화를 방지에도 효과가 있으며 허해진 기력을 회복하고 원기를 보충하는 자양강장 효과뿐 아니라 예민해진 신경을 안정시키는 진정작용을 한다.



소화를 돕고 피부 미용에 좋은 애플디

사과 속에는 비타민C와 나트륨, 칼슘 등의 무기질이 풍부해 피부미용에 좋다. 섬유질이 많아 소화를 촉진, 철분의 흡수율을 높여줘 빈혈에도 좋은 차다. 입이나 코 주변에 여드름이 날 때 마시면 효과를 볼 수 있다.



부드러우면서 예리한
우아하면서도 격렬한 결투,

펜싱의 세계

귀족 스포츠로 불리는 펜싱은 다양한 운동 효과가 알려지면서 아이부터 어른까지 폭넓은 연령층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 생활스포츠로 인기를 더해가는 펜싱, 매서운 기세로 찌르기를 시도하며 불꽃 튀는 대결을 펼치는 선수들의 몸놀림은 날렵하고 경쾌하다. 부드러우면서 예리한, 우아하면서도 격렬한 매력을 지닌 펜싱의 세계로 떠나보자.

Fencing

16세기 중엽, 오늘날 펜싱의 시초

서양에서 검이 무기로 사용되었을 때부터 시작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통일된 검으로서 형태를 갖춘 방법이 사용된 것은 로마 시대 이후라고 할 수 있다. 로마 시대의 펜싱은 '엔시스'라는 길이 40~86cm의 검을 사용했고 당시의 유명한 검사인 라니스테는 최고관으로 대접을 받았으며 군대의 전투 기술교육을 맡아 보았다. 그 후 16세기 중엽부터는 화약의 발달로 무거운 갑옷을 입는 전투에서 가벼운 전투로 변함에 따라 검도 가벼워졌다. 이 시대가 오늘날 펜싱의 시초이며 많은 검객이 나타나 여러 종류의 검술이 연구가 되었다. 이때 사용된 검은 '레이피어'라 불리는 스페인, 이탈리아 스타일의 양쪽 날이 좁고 긴 것이며 이것을 한손에 쥐고 보조로서 단검 혹은 외투를 갖추게 되었다. 이탈리아에서는 디 그라시(di grassi)가 나타나 검에 따른 팔과 다리의 합리적인 공격과 수비검용의 법칙을 연구했고 이를 스페인의 라카란자가 이어 받아 하나의 유파를 이루었으며 프랑스에서는 파리의 앙리상디데이가 현재 각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프랑스류의 검법을 만들어 종래 사용하던 단검을 폐지하고 장검만을 썼다. 오늘날 사용되는 펜싱 종목은 플뢰레(Foil), 에페(Epee), 사브르(Sabre) 3종이다.



경기 종목마다 다른 역동적인 경기 방법



펜싱 경기복 안쪽에는 촘촘한 전기선이 흐른다. 공격 유효면에 칼이 닿으면 선수에게 연결된 전선을 통해 전광판에 신호가 전달 된다. 때문에 펜싱은 각자의 진영에서 줄로 연결된 두 기사가 갑옷과 투구를 걸치고 서로의 진영을 정복하려고 벌이는 영토 싸움처럼 보이기도 한다. 한때 귀족들이 주로 즐긴 '위엄 있는 운동'이라는 걸 생각하면 목숨 건 벼랑 끝 결투처럼 잔인한 면이 있다. 우아한 몸놀림과 분위기에 가려졌지만, 격렬한 칼싸움의 흔적이 아직 탈색되지 않은 것이다.

흰색 도복을 입고 펜싱 경기에 필요한 용구를 착용한 다음 한쪽 손에 칼을 들고 피스트(Piste : 경기장) 안에서 서로 규칙에 정해져 있는 신체의 부분을 찌르거나 자르는 기술을 겨루는 경기이다. 경기 종목에는 쓰이는 칼에 따라 경기 종목이 플뢰레, 에페, 사브르로 나눈다.

플뢰레는 펜싱의 기초가 되는 경기이다. 남자와 여자가 모두 하는 경기로 유효면을 감싸는 금속으로 된 동의를 입으며 그 곳에다 찌르기를 한다. 전기 심판기를 사용해서 판정하며 유효면이 되어 있는 금속 동의에 찌르기가 들어가면 붉은색과 푸른색의 전등에 불이 켜져 득점이 된다. 그 밖의 부분에 들어맞으면 흰 전등에 불이 켜져 무효타가 된다. 또한 색깔이 있는 전등과 흰색 전등에 함께

불이 켜지면 무효가 된다. 남자는 3분에 5점, 여자는 3분에 5점을 먼저 얻으면 승자가 된다.

에페는 '결투의 무기'라고도 한다. 온몸이 유효면으로 돼 있어서 머리 위에서 발끝까지 어느 곳을 찔러도 득점이 된다. 전기 판정기로 판정을 하게 되며, 3분에 5점으로 되어 있으며 동시타가 인정되어 두 사람에게 득점을 주게 된다. 즉 25분의 1초 이내에 양 선수가 동시에 찌르기에 성공하면 양쪽에 똑같이 불이 켜진다.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나중에 찌른 사람 쪽 등에는 불이 들어오지 않는다.

사브르는 자르는 기술에 찌르기도 할 수 있는 종목이다. 허리 아래를 제외한 모든 부분을 자르거나 찌르면 득점이 되는데 3분에 5점을 먼저 얻으면 승자가 되고, 자르는 기술이 주가 된다. 승패 결정은 플뢰레와 사브르는 공격을 우선으로 하되, 상대의 공격을 막아 내면 반격의 권리를 얻는다.

에페는 방어에 관계없이 먼저 찌르는 사람에게 득점이 주어진다. 남자와 여자 모두 5점을 선취하면 승자가 된다. 무승부가 될 경우에는 에페 경기에서는 양 선수를 모두 패자로 하고 플뢰레와 사브르에서는 시간의 제한 없이 단판 승부로 결정한다. 단체 경기는 종목별로 후보 선수를 포함 4명의 선수가 출전하며, 각각 3게임씩 9게임을 치러 먼저 45점을 따게 되면 승자가 된다.



순발력과 민첩성, 유연성과 균형감 높이는 온몸 운동



펜싱 운동은 찌르기와 베기를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집중력, 순발력과 민첩성뿐만 아니라 유연성과 균형감까지 요구되는 온몸 운동이다. 찌르기를 하면서 뺨는 동작으로 스트레칭 운동은 자동으로 된다. 펜싱은 복잡한 규칙을 지키면서 상대에게 찌르기를 허용하지 않아야 득점할 수 있는 운동이다. 그래서 순간 판단력이 많이 작용되는 지적인 게임이며 온몸 운동으로 열량의 소비가 커서 비만으로 고생하는 이들에게도 환영받는 운동이다. 특히 요요가 많이 오지 않는 운동으로 운동을 시작한 지 5분 만에 땀이 줄줄 난다는 신아람 펜싱 선수의 경험담은 화제가 됐다. 또 펜싱은 실내운동이기 때문에 날씨의 제약 없이 1년 내내 운동을 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매력이다. 특히 펜싱은 팔을 뻗고 발을 벌리고 앞뒤로 왔다, 갔다 하면서 타이밍을 보고 순간적으로 공격하기 때문에 특히 하체 운동으로 좋다. 펜싱 운동은 이처럼 하체 근육을 강화시키고 군살을 빼면서 다리를 날씬하게 해주는 효과 때문에 여성들에게 인기가 많다.

Balance

tip

☑ 펜싱 경기 종목

🗡 **플뢰레(Foil)** 상체 (팔과 머리, 다리 제외)
- 500g 이하의 칼을 사용

🗡 **에페(Epee)** 전신 찌르기
- 770g 이하의 칼로 비교적 무거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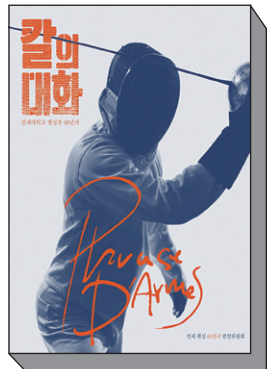
🗡 **사브르(Sabre)** 찌르기와 베기
(팔과 머리를 포함한 상체)
- 에페와 플뢰레보다 짧은 105cm 칼 사용

☑ 간단한 펜싱 용어

- **알레(Allez)**: 경기를 시작하라는 명령
- **알트(Halte)**: 경기를 멈추라는 명령
- **앙가르드(En garde)**: 준비
- **에트부프레(Ete-vous prêts)**: 준비되셨나요?
- **가르드(Garde)**: 펜싱의 기본 자세로 공격과 방어 어느 쪽으로든 옮길 수 있는 자세
- **리포스트(Riposte)**: 되찌르기의 공격 동작
- **므쥬르(Mesure)**: 찌르기 동작을 해서 상대의 검 끝에 닿은 최장 거리
- **코르 아 코르(Corps a corps)**: 두 선수가 신체적으로 접촉을 일으킨 상황
- **콩트르 리포스트(Contre riposte)**: 상대의 되찌르기를 검으로 막고 다시 찌르는 공격 동작
- **콩트르 아타크(Contre attaque)**: 상대의 공격이 끝나기 전에 선수를 쳐서 공격하는 동작
- **파라드(Parade)**: 공격을 받은 상대의 검을 자기 검으로 젖혀서 자신을 지키는 방어 동작
- **프레파라시옹 다타크(Preparation d'attaque)**: 공격을 쉽게 하기 위한 준비 동작
- **플레슈(Fleche)**: 일정 거리에서 갑자기 상대의 유효면에 뛰어들면서 찌르는 공격으로 찌르면서 상대의 옆으로 빠지는 동작
- **포앵(Point)**: 점수
- **피스트(piste)**: 경기대



BOOK



칼의 대화 지음_연세펜싱60년사 편찬위원회

‘연세 펜싱 60년’은 한국 펜싱의 역사를 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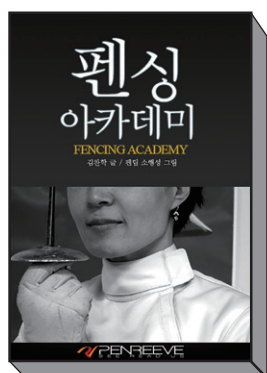
1957년에 창립한 연세대학교 펜싱부는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펜싱 동호회’로 대한민국 펜싱 역사의 본격적인 시작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열과 성을 다해 펜싱부를 시작, 지금까지 명맥을 이어온 연세대학교 펜싱부의 60년 역사는 단순히 한 대학 펜싱부만의 역사가 아닌, 대한민국의 펜싱의 역사와 궤를 같이한다. 이 책에서는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펜싱부인 연세대학교 펜싱부의 역사와 일련의 사건들을 시대별로 조망했다. 특히 ‘1965년 대한펜싱협회 펜싱 경기 규칙 해설’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열린 한일친선 펜싱대회 안내서에 기록된 해설서로 대한민국 펜싱의 역사적 가치가 있는 자료다. 이처럼 ‘칼의 대화’는 한 학교의 스포츠 모임을 넘어 ‘펜싱’이라는 단어가 생소하던 시절부터 국민적인 관심을 갖는 올림픽 인기종목이 된 현재까지, 우리의 펜싱 역사가 담겨있다.



경호사격과 권총 지음_강민완 외

총기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예의를 갖출 것

산업이 발전하고 경제가 성장할수록 생활범죄인 경범죄는 감소하고 흉폭하고 잔인하며 불특정인물을 대상으로 하는 살인, 강간 등의 중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민간경호·경비원 중 총기를 소지할 수 있는 분야는 특수경비원뿐이다. 하지만 점차 지능적, 계획적이며 잔인하게 변해가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일반 경호·경비 분야에서도 먼 미래에 총기의 소지가 불가피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총기류는 단 한 번의 실수로도 치명적인 인명의 소실을 초래할 수 있고 잘못 사용돼 의도했던 바와는 다르게 범죄에 오용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총기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예의는 경호경비 요원이 되기 위해서라면 누구나 갖추어야 할 필수 덕목임에 틀림없다. 철저한 사전교육으로 안전사고나 오용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펜싱 아카데미 지음_김찬학

펜싱에 입문한 이들에게 알려주고픈 핵심적인 것들

2006년 국내 처음으로 사설 펜싱아카데미와 전문클럽을 개원한 저자는 펜싱을 배우기 시작한 사람들에게 펜싱과 그 주변 것들에 대한 폭넓고 다양한 내용과 기본적인 펜싱 상식으로 알아둬야 할 내용들, 기초기술에 대한 이론과 수준 높은 기술에 바탕이 되는 기본 기술에 대한 설명을 중점적으로 소개했다. 특히 스포츠 펜싱에 기본이 되는 플뢰레 종목에 집중적으로 설명했는데 자세와 동작의 해부학적 설명과 도식을 700여 장의 사진과 도해를 제시해 몸과 동작의 이해를 도우려고 애썼다. 해외에서 발간된 펜싱 책을 살펴봐도 이렇게 자세한 설명과 이해가 쉬운 도식과 사진을 게재한 펜싱 책은 없다는 점에서 저자의 섬세한 시각과 남다른 노력이 돋보인다.

MOVIE



나의 펜싱 선생님 감독_최클라우스 해로 출연_메르트 아반디, 우르술라 라타셉, 헨드리크 토펬레 시니어

아이들에게 ‘희망’을 선물한 전직 펜싱 선수의 감동 실화!

에스토니아 펜싱 선수 엔델은 독일군의 강제 징집으로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게 된다. 이후 나치가 패망하면서 소련군들은 에스토니아에서 독일군으로 활동했던 이들을 찾아 수감시킨다. 스탈린의 철권통치가 시작된 1953년, 펜싱도 그만두고 에스토니아의 작은 마을로 도망쳐온 엔델은 자신의 신분을 숨기며 시골 학교의 체육교사로 살아간다. 나무막대기로 펜싱 검을 만들어 펜싱클럽을 연 엔델. 아이들에게 펜싱은 그저 신기하고 흥미롭기만 하다. 교장은 펜싱이 반사회주의적 엘리트 운동이라며 저지하지만, 소련 당국의 눈치만 보며 살아가던 주민들은 아이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며 엔델을 적극 응원한다. 그러던 어느 날, 레닌그라드로부터 펜싱대회 참가신청서가 날아오고 대회에 참가하면 자신의 신분이 밝혀질 수 있는 상황, 아이들의 희망을 지켜주고픈 엔델은 선택의 기로에 놓이는데….



사안드 키 안크 감독_투샤르 히라난다시 출연_부미 체드네카르, 탐시 파누

신박한 사격 솜씨로 자존감 찾아가는 여정

1998년 인도 북구 우타르프라데시주 바그파트 지역의 농촌 여성들이 농사를 지어 돈을 벌고 살림을 하며 아이를 낳아 기르고 남성들은 무의도식하며 천국 같은 삶을 보낸다. 여성들은 일터 외에는 절대 집밖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는 극강의 할아버지들, 그들이 지배하는 상황 속에서 대가족을 이끌고 있는 두 할머니. 66세의 찬드로 토마르와 61세의 프라키쉬 토마르는 마을에 새로 세워진 사격장에서 자신들의 신박한 사격 솜씨를 발견하고 깜짝 놀란다. 사격 코치는 두 할머니를 인근 마을에서 열리는 시니어 사격대회에 출전시키고 마을 밖으로 나가야 하는 두 할머니는 살벌한 할아버지들을 속이고 대회에 출전, 금메달과 은메달을 차지하며 주위를 놀라게 한다. 두 할머니는 인도 전 지역에서 열리는 시니어 사격대회에 출전해 메달을 모두 쓸어 담으며 서서히 자존감을 깨우쳐가는데….



더 베스트(원제: by the sword) 감독_제레미 케이건 출연_F. 메레이 아브라함, 에릭 로버

최고만을 요구하는 절대적인 승부사

살인죄로 20여 년의 장기 복역을 마치고 출옥한 수바는 자신이 다니던 펜싱 도장을 찾는다. 원장 빌라드는 처음에는 그를 청소부로 고용하지만 뛰어난 펜싱 실력을 알고는 사범으로 특채한다. 빌라드는 항상 최고만을 강조하는 일등 지상주의자. 오직 최고만을 목표로,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기교만을 가르친다. 따라서 기와 예와 인간성의 조화를 강조하는 수바와는 충돌이 잦다. 빌라드는 은밀히 수바의 신원을 조회한 결과, 자기 아버지를 살해한, 아버지의 수제자였음을 알게 된다. 수바는 자신도 젊었을 때 빌라드처럼 오직 승부에만 집착한 비정한 선수였고 모욕을 참지 못해 대결 끝에 스승을 살해했음을 밝힌다. 두 사람은 생명을 건 진검 대결을 벌이고 결국 빌라드는 수바의 깊은 뜻을 이해하고 그에게 존경의 예를 갖춘다.



S

Target on



T



구체적이고 선명한 타깃, 정조준하라! Target on

목표 설정은 과제에 집중하게 만들고 지속적으로 노력하게 만든다.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한다는 건 경기 패배, 기술향상의 부진에도 인내력을 길러줄 뿐

아니라 선수들의 동기유발을 촉진시킨다. 어디로 가고 싶은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

특정한 날짜 혹은 기간을 단기, 장기적으로 정하라! 거창하지 않은 실현가능한 목표를 세워라!

R

구·군체육회

중구체육회 2020년도 제4차 중구체육회 이사회



중구체육회는 지난 10월 30일(금) 영도에 있는 오채담에서 제4차 중구체육회 이사회를 실시했다. 중구체육회 임원 35명, 사무국장 1명, 지도자 5명, 담당 관계자 4명으로 총 45명이 참석했다. 체육회의 사항보고와 여러 안건에 대해 회의를 진행했다.

서구체육회 대의원 임시총회



서구체육회는 지난 11월 2일(월) 동대신동에 위치한 미가도 횃집에서 '부산광역시서구체육회 대의원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11명의 대의원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구체육회 회원종목단체 회장선거 규정 관련 건, 스포츠공정위원회 설치(안)건을 중심으로 기타 토의와 함께 회의가 진행되었다. 총회 후에는 함께 저녁식사를 하며 화합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동구체육회 2020년도 동구체육회 하반기 생활체육교실



동구체육회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인한 여가활동과 야외종목위주 생활체육 종목을 안전수칙을 준수해 동구 관내 배드민턴, 걷기, 족구, 테니스 등 11개 종목을 개최, 운영하고 있으며 종목별 20명 정원으로 동구민 350명여가량이 다양한 신체활동으로 구민의 체력 증진과 활기찬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생활체육교실을 개최했다.

영도구체육회 2020년도 영도구체육회 10월 이사회



영도구체육회는 지난 10월 12일(월) 영도구청 2층 대회의실에서 영도구체육회장, 영도구청장,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10월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임원 인준결과를 보고하고 영도구체육회 규약개정(안), 회원종목단체 규정개정(안), 회원종목단체 회장선거 규정개정(안),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전부개정(안), 스포츠공정회 및 생활체육지도자 운영위원회 설치 및 선임, 정회원종목단체 강등의 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회의가 끝난 후에는 식사자리를 가지며 10월 이사회를 마무리했다.

부산진구체육회 민선1기 부산진구체육회 김호상 회장 취임식 개최



부산진구체육회는 지난 11월23일(월) 초읍동 한국자유총연맹 부산자유회관에서 '민선1기 부산진구체육회 김호상 회장 취임식'을 개최했다. 이날 취임식에는 부산광역시체육회장, 부산진구청장, 부산진구의회 구의원 및 유관기관단체장, 부산진구체육회 임원과 체육 동호인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부산진구체육회장의 취임사에 이어 귀빈들의 격려사와 축사가 이어지며 원만한 행사가 진행되었으며, 취임한 김호상 회장을 필두로 부산진구체육회의 활발한 활동을 기대해본다.

동래구체육회 2020년도 동래구체육회 · 동래스포츠클럽 3/4분기 이사회 및 대의원 임시총회



동래구체육회는 지난 10월 23일(금) 싹다한우숯불갈비에서 동래구체육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 대의원 등 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0 동래구체육회·동래스포츠클럽 3/4분기 이사회 및 대의원 임시총회 각각 개최했다. 이날 열린 총회에서는 동래구체육회 정관 일부 개정(안) 심의, 동래구체육회 회원종목단체 규정 일부 개정(안) 심의, 동래구체육회 회원종목단체 회장선거 규정 제정(안) 심의, 동래구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전부개정(안) 심의, 관리·운영 부실 회원종목단체 관리단체 지정(안)을 심의하는 자리가 되었다. 총회 후 만찬을 즐기며 동래구 체육 발전과 동래구민의 건강증진에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남구체육회 2020년도 남구체육회 임시대의원총회



남구체육회는 지난 10월 16일(금)에 임시대의원총회를 실시했다. 임시대의원총회에서는 남구체육회 사무국 운영 규정 제정, 사무전결처리 규정 제정, 관리단체운영 규정 제정,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개정, 회원종목단체 규정 개정, 회원종목단체 가입·탈퇴 규정 개정, 회원종목단체 회장선거 규정 제·개정, 남구스내골프협회 가입을 보고했고 심의사항으로는 남구체육회 규약 개정(안), 임원 선임(안), 스포츠공정위원 위원 선임(안), 남구풋살협회 제명(안)이 있었고 기타 토의를 나누며 임시대의원총회를 마무리했다.

구·군체육회

해운대구체육회 제38회 해운대구청장기 축구대회



해운대구체육회는 지난 10월 25일(일) 제38회 해운대구청장기 축구대회가 장산인조잔디구장에서 개최했다. 대회 결과로는 1위 반여축구회, 2위 해동축구회, 3위 해운대축구회, 우2축구회가 차지했다. 이번 구청장기 축구대회는 10개 팀 400여 명의 축구 동호인들이 그동안 묵혀왔던 스트레스 해소하고 동호인들의 친목도모와 구민 건강증진을 위해 개최되었다.

사하구체육회 사하구자원봉사센터 업무협약 체결



사하구체육회는 지난 10월 15일(목) 사단법인 사하구자원봉사센터와 사하구 주민의 건강한 생활과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를 위해 체육회가 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강서구체육회 강서구수영협회 낙동강 100리길 완영행사



강서구체육회는 회원종목단체 강서구수영협회는 지난 10월 18일(일)부터 11월 1일(일) 3주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낙동강 100리길 수영 Challenge' 횡단 마지막 날인 1일(일) 선수 25명과 안전요원 2명 등 40명이 참가한 가운데 완영행사를 진행했다. 강서구체육회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힘든 상황 속에서도 서로를 응원, 지지하며 함께 극복해 나가자는 격려의 말을 전했다.



금정구체육회 제33주년 금정구축구협회장기 및 지은정형외과배 축구대회



금정구축구협회는 지난 11월 1일(일) 선동천연잔디구장과 부산외국어대학교구장에서 '제33주년 금정구축구협회장기 및 지은정형외과배 축구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선선한 가을바람이 부는 맑고 화창한 날씨에 코로나19 바이러스로 개회식은 없었지만, 동호인들이 대회에 참가해 그동안 쌓아온 멋진 실력을 선보이며 승부를 겨뤘다. 대회 결과로는 클럽부 우승 남산축구회, 준우승 청룡축구회가 수상했고 개인상 최우수선수상은 남산축구회 김동현 선수, 우수선수상은 청룡축구회 진성언 선수가 수상했다.

연제구체육회 2020년도 제1차 스포츠공정위원회



연제구체육회는 2020년 10월 12일(월) 연제구청 2층 소회의실에서 연제구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 7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 연제구체육회 제1차 스포츠공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제1차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는 스포츠공정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안), 회원종목단체 회장 선거 규정 제정(안), 회원종목단체 임원 연임 횟수 제한의 예외 인정 심의(안)을 심의·의결했다.

사상구체육회 양산 에덴벨리에서 레저체험 활동 실시



사상구체육회는 2020년 10월 24일(토) 양산 에덴벨리에서 60여 명이 참여한 2020어린이체능교실, 2020청소년체력교실 프로그램 서바이벌, 루지 등의 레저체험 활동을 실시했다.

회원종목단체

부산광역시스쿼시연맹 제20회 회장배 전 한국스쿼시 선수권대회

부산광역시스쿼시연맹은 지난 10월 28일(수)부터 10월 30일(금) 3일간 경상북도 김천스쿼시경기장에서 개최된 '제20회 회장배 전 한국스쿼시 선수권대회'에서 부산광역시체육회 소속 선수 2명이 참가해 올해 계약 첫 해인 유재진 선수가 남자 일반부 2위에 오르는 쾌거를 이뤘다. 유재진 선수는 32강 첫 경기에 현재 국가대표인 정대훈(경남체육회) 선수를 시작으로 이성택(전북연맹) 선수 등 매년 전국체전 입상자들을 차례로 물리치며 결승에 올랐지만 전국에서 탑인 이세현(대구시청) 선수에게 세트 스코어 3대 1로 아쉽게 패해 2위로 만족해야 했다. 유재진 선수는 올해 개최가 될 전국체육대회를 대비해 군복무 중임에도 불구하고 야심차게 스카웃 해온 선수였다. 지난 7월에 군을 전역하였음에도 짧은 기간 개인 훈련을 잘 소화해 멋진 복귀전을 치렀다. 한편 (사)대한스쿼시연맹은 1년째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에도 대회전 모든 참가자들의 사전출입신청서, 발열체크 등을 비롯해 만 18세 미만 선수 및 복식대회에만 착용하는 아이마스크(페이스실드)를 모든 선수들에게 의무적으로 착용하게 했고 최대한 안전한 대회를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해서 원활하게 대회를 마무리했다.



부산광역시테니스협회 2020 추계 부산광역시테니스협회장배 클럽테니스대회

부산광역시테니스협회는 지난 11월 15일(일) 을숙도 코트 외 보조구장에서 2020 추계 부산광역시테니스협회장배 클럽테니스대회를 개최해 동호인들의 테니스 경기에 대한 갈증을 조금이나마 해소했다. 2020 추계 부산광역시테니스협회장배 클럽테니스대회는 동호인들의 실력 향상과 저변확대를 통해 생활체육 테니스 동호인 활성화에 기여했다. 생활 속 스포츠로 시민들의 지속적인 건강 향상은 물론 부산 동호인의 참여와 자부심을 갖는 대회로 인식되었다. 부산광역시테니스협회는 앞으로도 부산시민이 스포츠로 인해 건강하고 즐거워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부산공공스포츠클럽

부산광역시거점스포츠클럽 거제국민체육센터, 연제체력인증센터 운영



부산광역시거점스포츠클럽에서 2024년까지 거제국민체육센터를 위수탁을 받아 운영한다. 거제국민체육센터는 헬스장, GX실, 프로그램실, 국민체력인증센터가 운영될 예정이다. 프로그램실에서는 요가, 필라테스, 다이어트댄스, 스포츠댄스 등 다양한 수업이 운영될 계획이다. 거제국민체육센터는 2021년 1월에 개관 예정이다.

부산광역시거점스포츠클럽 제49회 회장배 전국남녀중별 펜싱선수권대회 우승



지난 10월 16일(금)부터 21일(수)까지 전라남도 해남우슬체육관에서 제49회 회장배 전국남녀중별펜싱선수권대회가 개최되었다. 이날 거점스포츠클럽에서는 총 11명(남초부 6명, 여초부 3명, 남중부 2명)이 출전해 남초부 단체전 준우승, 개인전 2, 3위/여초부 단체전 우승, 개인전 우승 등 뛰어난 활약을 보였다. 2년 연속 단체전 우승 등 뛰어난 성과를 보이는 학생선수들의 밝은 미래를 기대한다.

(사)월계수스포츠클럽 부산체육고등학교 김창민 교장, '대한민국 체육 100년 기념식' 체육진흥부문 체육유공자 수상

지난 11월 3일(화) 오후 2시 30분에 서울 올림픽홀에서 대한민국 체육 100년 기념식이 열렸다. 본 행사는 3.1 만세운동 이듬해인 1920년 창설된 조선체육회가 설립 100년이 되는 올해 한국 체육사를 되돌아보고 지난 100년간 대한민국 체육 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신 선수와 지도자 체육행정, 학계 등 체육인들의 업적을 널리 알리기 위해 3년 전부터 대한체육회가 기획, 추진한 뜻깊은 행사였다. 이번 행사에서 부산체육고등학교 김창민 교장은 학교 체육진흥부문 공로자로 선정돼 수상했다. 김창민 교장은 1990년부터 1997년까지 부산체육고등학교 육상 담당교사로 재직하면서 3회 연속 전국체육대회 우승지도, 5회 학생신기록 작성지도, 육상청소년대표감독 역임 등을 통해 후학지도에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며 2000년 부산전국체육대회와 2002년 아시아장애인경기대회 개최식 행사를 총괄·기획하는데 참여했다.

2008년 부산시교육청 장학사로 재직할 당시 전국 최초로 학교스포츠클럽제도를 부산에 도입해 일반 학생 체력증진과 스포츠 생활화에 기여했으며 또한 2012년 당시 부산체육고등학교장으로 재직하면서 병설 부산체육중학교를 설립하는데 산파 역할을 하는 등 학교체육 발전에 지대한 공이 인정돼 이번에 수상하게 되었다. 특히 김창민 교장은 부산세팍타크로 회장과 수석부회장을 역임하면서 부산체육고등학교 세팍타크로부가 전국체전 5연패, 부산세팍타크로 종목의 전국체전 종합 4년 연속 우승 등 견인자 역할을 했다.



부산국민체육센터

01 꿈나무체능단 소식

부산국민체육센터 꿈나무체능단은 지난 11월 14일(토) '2021년도 원아모집 공개추첨'을 진행했다. 꿈나무체능단은 일반유치원에서 진행되는 누리 교육과정 포함해 타 유치원과는 차별화된 수영, 태권도, 발레, 국악 등 예체능 프로그램으로 인해 학부모들의 관심이 매우 높았으며 재원생을 포함해 2021년도 단원 60명으로 모집을 마감했다.



02 2020년도 하반기 직장 내 폭력 및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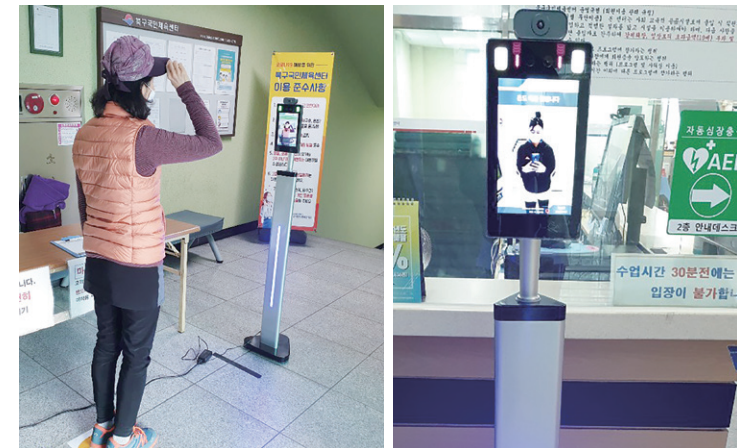
직장 내 폭력 및 성희롱 예방교육이 법정 의무교육으로 지정,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직장 내 폭력과 성희롱 사건들이 빈번히 매스컴을 통해 보도되곤 한다. 이에 우리 부산국민체육센터는 하루의 시간 중 대부분을 보내는 직장에서의 즐겁고 좋은 시간만 보내며 생각하지 못한 폭력과 성희롱으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겪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교육을 진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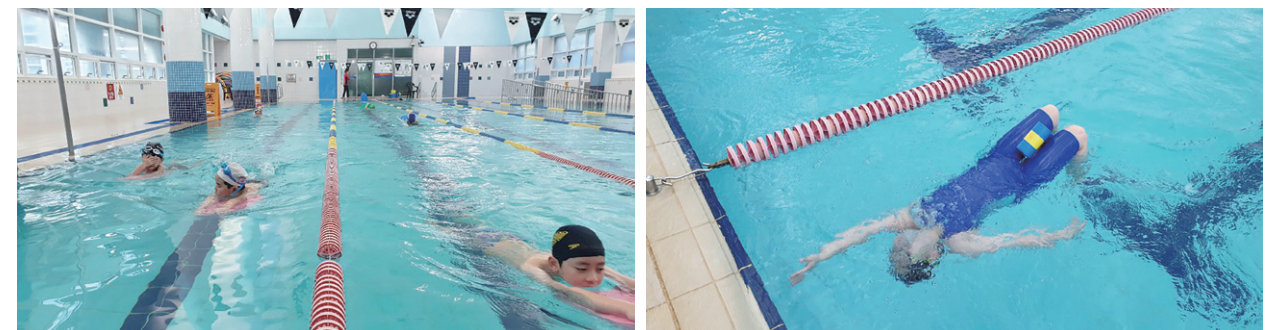
북구국민체육센터

01 센터 재개관 운영

북구국민체육센터는 지난 10월 19일(월)부터 센터 정상 운영에 나섰다. 평일 운영은 오전 6시부터 밤 10시로 운영되며 주말 운영은 잠정 중단한다. 북구국민체육센터 모든 임직원들은 마스크 의무화에 따라 수영장, 샤워실을 제외한 탈의실, 헬스장, 관망대, 스튜디오A·B 등 센터 모든 곳에서 상시적으로 지역민들에게 마스크 착용을 지도하고 시설물 방역에 더욱 더 힘쓰고 있다. 또한 시발열체크 감지기를 도입해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고 지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함으로써 지역민들의 만족감이 매우 높아질 것을 기대한다.



02 부산북구스포츠클럽 '수영 꿈나무 선수반'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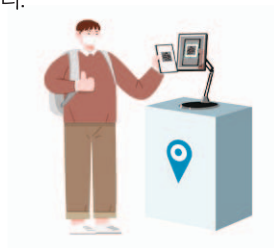


북구국민체육센터에서 운영 중인 부산북구스포츠클럽이 수영 선수의 꿈을 가진 많은 어린이, 학부모들의 관심 속에 '수영 꿈나무 선수반'을 운영한다. 초등부 학생들로 이뤄진 어린이 수영 선수반 '꿈나무 선수반'은 국가대표 출신의 우수한 지도자의 지도아래 꾸준한 영법 교정과 스피드 강화연습, 실전대비 훈련 등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다양한 대회에 참여, 메달 획득을 목표로 훈련하고 있다. 부산북구스포츠클럽은 앞으로도 학생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즐겁게 운동하면서 신체와 정신을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지도교육에 힘쓸 예정이다.

영도국민체육센터

01 전자출입명부 전면 시행

영도국민체육센터는 코로나19 감염 확산과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11월 2일(월)부터 전자출입명부를 전면 시행했다. 전자출입명부 시행으로 추후 확진자 발생 시 신속한 방역 조치에 활용할 수 있고 출입명부 작성 시 우려되는 개인정보 노출과 허위 정보 기재 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단 스마트기기 이용이 어려운 어린이나 조작에 익숙하지 않은 노인들은 예외적으로 수기 출입명부를 작성한다.



02 회원만족도 조사 실시

영도국민체육센터의 개선과 발전을 위한 2020년 프로그램 및 시설운영에 대한 회원만족도 설문조사를 지난 11월 2일(월)부터 진행했다. 설문조사는 시설을 이용하는 모든 회원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프로그램 만족도·직원 및 지도자 만족도·시설물에 대한 만족도 등 27개의 문항으로 돼 있다. 영도국민체육센터장은 “설문조사를 통해 이용자의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의견을 적극 반영해 보다 나은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설문조사에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밝혔다.



03 2020년 신나는 주말! 체육학교 학교 밖 프로그램 계약 체결

영도국민체육센터는 대한체육회 주최, 영도구체육회에서 주관하는 2020년 신나는 주말! 체육학교 학교 밖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스포츠 시설 이용 계약을 체결했다. 2020년 10월부터 12월까지 매주 토요일 스쿼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강서구국민체육센터

01 강서구국민체육센터 재개관

코로나19로 임시 휴관이었던 강서구국민체육센터가 지난 10월 6일(화)부터 재개관해 운영 중이다. 거리두기 단계별 운영기준을 준수해 시설별 방역관리, 출입자 명단관리 환기, 소독 등 정부 방역 지침을 적용하고 있다. 기존과 달리 비회원 수영, 배드민턴 일일 입장은 제한되고 있으며 헬스장은 매일 오후 12시부터 1시까지가 방역 시간으로 입장이 제한된다. 강서구국민체육센터장은 “지역 주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운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02 2020년 소방훈련 실시

강서구국민체육센터는 지난 10월 28일(수) 직원 대상으로 모의 합동 소방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에서는 소화기와 소화전 사용법과 화재 시 초기 대응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혹시 모를 사태를 대비한 대처 능력을 익히는 데 중점을 두었다. 강서구국민체육센터는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해 지역주민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더욱 노력할 계획이다.



부산실내빙상장

부산실내빙상장 재개장



코로나19 전염 확산 방지 대책으로 잠정 임시휴관을 했던 부산실내빙상장이 지난 9월 29일(화)부터 재개장했다. 매일 4회 이상 객장 등 이용객 사용시설을 소독하고 있으며 이용객의 발열 체크 및 손 소독제 사용유도, 최대한의 거리 유지 등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빙상장을 이용하도록 해서 감염 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단체강습

날짜	시간	프로그램	강습료
화, 목, 금	17시~17시50분	어린이반(초등학생)	60,000
토, 일	9시~12시	성인(초·중·급)	80,000
토, 일	9시~12시	성인(고급)	80,000
토, 일	토 9시~9시50분	어린이반(초등학생)	60,000
	일 9시~10시50분		

※ 피겨 및 개인강습은 센터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입장료

구분	입장료	스케이트 대여료	스케이트 연마료	장갑판매
어린이 (유아·초등학생)	2,500원	3,000원	2,500원 (스피드스케이트만 가능)	매표소에서 구입 가능
청소년(중·고등학생)	3,000원			
성인	4,000원			

정기회원 및 강습료

구분	요금	
어린이 (유아·초등학생)	60,000원	- 이용 시간 : 09:00 ~ 18:00, 입장마감(17:30) - 라커룸 내 개인 사물함 이용 월 사용료 5,000원
청소년 (중·고등학생)	70,000원	
성인	80,000원	

※ 문의전화 : 051-337-4087

단신 뉴스

NEWS. 01

진천 국가대표선수촌 입촌 및 촌외훈련 11월 재개

- 국가대표 선수단에게 최상의 훈련 환경을 제공, 경기력 발휘토록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방역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11월부터 진천 국가대표선수촌 입촌 및 촌외훈련을 재개했다. 종목별 수요조사를 통해 1차로 17개 종목 585명의 국가대표 선수단이 훈련을 시작할 예정이며, 훈련장 특성상 촌외훈련이 어려운 *자전거, 수영, 체조 등 3개 종목 약 110여 명의 선수는 국가대표선수촌에 입촌하게 된다.

*입촌 일정은 종목별 상이

선수촌 훈련 시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훈련인원 분산, 훈련 재개 전 참여인원 전원 코로나19 검사 실시, 선수촌 내 훈련 전·후 상시 방역, 개인방역물품 지급 등 중대본의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했다. 체육회는 선수단에게 개인별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안내하고 숙소 1인 1실 배정, 식당 등 공동 시설에 대한 이용수칙 마련 및 수시 방역 등을 실행한다. 더불어 방문객의 방문을 최소화하고 부득이한 경우 방문객의 증상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 선수촌을 안전하게 유지할 계획이다.

촌외훈련 시에는 인원 분산을 위해 종목별 훈련 인원을 50인 미만으로 제한했으며 훈련장 별 방역대책 수립을 위해 합숙훈련 방역 가이드를 배포했다. 또한 일일 건강상태를 유선 확인하는 등 관리를 지속하며 추후 종목별 촌외훈련 현장 방역지침 준수 여부와 훈련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 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는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한 국가대표 선수들의 경기력 저하 방지를 위해 34개 종목 970여 명 선수를 대상으로 비대면 훈련을 지원해왔다. 또한 도쿄올림픽 연기로 인한 선수들의 사기저하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심리 상담을 지원하는 등 코로나19 상황 하에서도 도쿄하계올림픽 준비를 꾸준히 진행했다. 또한 선수촌 내 숙소 재정비, 훈련시설 보수공사 등을 진행해 선수단 재입촌 시 최상의 훈련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내부 단장을 마친 상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남은 도쿄하계올림픽 준비 기간 동안에도 국가대표 선수단에게 최상의 훈련 환경을 제공해 경기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출처 : 대한체육회



단신 뉴스

NEWS. 02

대한민국 체육 100년 기념식 개최

- 새로운 내일을 약속하는 미래 · 희망 · 화합의 장이 되길



대한체육회는 대한민국 체육 100년을 맞이해 지난 100년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대한민국 미래 100년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 11월 3일(화) 오후 2시, 올림픽홀에서 '대한민국 체육 100년 기념식'을 개최한다. 기념식에는 정세균 국무총리,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도종환 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장, 최윤희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국회의원, 역대 대한체육회장과 전(前) 국민생활체육회장을 비롯해 회원종목단체장, 시·도체육회장, 선수 및 지도자, 동호인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기념식은 과거 100년을 되돌아보고 미래 100년을 향한 미래의 장, 국민의 행복과 대한민국 체육의 미래를 여는 희망의 장, 체육인들의 화합과 결의를 다지는 화합의 장으로 구성했으며, 공식 1부(대한민국 체육 100년)와 공식 2부(국민과 함께 할 100년)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1부에서는 1920년 7월 13일 조선체육회 창립부터 미래 100년의 비전을 담은 홀로그램 퍼포먼스 '불빛의 여정'을 통해 대한민국

체육 100년의 역사를 생동감 있게 표현했다. 공연 후에는 1956년 멜버른올림픽 복싱 라이트웰터급에 참가한 황의경 선수(1930년생, 91세, 남)와 1960년 스쿼벨리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500m에 참가한 김경희 선수(1941년생, 80세, 여)가 직접 조선체육회 창립취지서를 낭독했다. 이어서 지난 2년 4개월 동안 집필 과정을 거쳐 대한민국 체육 100년의 역사를 기록한 '100년사'를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장 및 편찬영상분과위원장이 직접 대한체육회장에게 헌정한 후, '스포츠를 통한 사람의 가치와 행복 실현'을 주제로 한 미래 청사진을 발표했다. 이후 이기홍 대한체육회장의 기념사, IOC 토마스 바흐 위원장의 축하 영상 메시지 상영, 정세균 국무총리·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국회 도종환 문체위원장의 축사가 이어졌으며, 참석贵宾과 함께 축하 떡 커팅식으로 공식 1부를 마무리했다.

2부에서는 대한민국 체육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및 모범직원 대상 대한체육회장상 시상과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들에 대한 감사장 수여식, '2020 대한민국 스포츠영웅'으로 선정된故 조오련(수영) 선수에 대한 헌액식이 진행되었다. 그리고 '미래 100년 후대에게 보내는 손 편지 공모전'에서 체육 청소년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한 김수민 양(13세·배구선수, 추계초등학교)의 손 편지 낭독, 스포츠인 교육 백년대계 비전 선포 영상 상영이 이어지며 플래그 퍼포먼스를 끝으로 기념식이 마무리되었다.

대한체육회는 이번 기념식을 통해 지난 100년간 대한민국 체육 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신 선수와 지도자, 체육행정, 학계 등 체육인들의 업적을 널리 알리고 최근 드러난 체육계의 여러 문제점 및 현안사항들을 반성하고 되짚어봄으로써 2020년을 국민과 함께 할 미래 100년을 새롭게 준비하는 원년으로 삼을 계획이다. 대한체육회는 이번 기념식이 체육인의 자부심을 나누고, 대한민국 체육의 새로운 내일을 약속하는 미래 · 희망 · 화합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

출처 : 대한체육회

NEWS. 03

대한민국 체육 100년 기념, 타임캡슐 매설식 개최

- 미래 100년 후 후대가 현재 체육인들의 삶과 업적을 이해하는 소중한 역사 자료

대한체육회는 11월 10일(화) 오후 3시, 진천 국가대표선수촌에서 '대한민국 체육100년 기념, 타임캡슐 매설식'을 개최했다. 대한체육회는 창립 100주년이자 대한민국 체육 100년을 맞아 지난 100년의 체육 역사를 상징하고 기념이 될 자료 220점을 선정해 타임캡슐에 봉인했다. 타임캡슐에 봉인된 물품은 조선체육회(대한체육회 전신) 창립일인 1920년 7월 13일부터 2020년 7월 13일까지 100년의 역사적 자료들이다. 주요 물품으로는 역사적 상징성을 띄거나 미래에 대한 희망을 담은 기록물(조선체육회 창립 취지서, 대한민국 체육 100년사, 미래 100년 후대에게 보내는 손 편지), 국가대표 선수들의 땀이 서려 있는 국내외 경기대회 물품(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아경기대회 체조 여자 도마 금메달리스트 여서정 유니폼, 2018 평창동계올림픽 여자하키 남북단일팀 올림픽 첫 골을 기록한 랜디 희수 그리핀 유니폼, 2018 평창동계올림픽 컬링 여자 은메달 '팀킴' 유니폼), 현 시대상을 알 수 있는 물품(국가대표 선수 식단, 대한체육회 직원 신분증, 직원 근무사진) 등이 있다.

매설식에는 2017~2018 시즌 봅슬레이스켈레톤 국가대표 유니폼을 기증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용 의원(당시 총 감독)을 비롯해 시·도·회원종목단체 대표, 체조 국가대표 양학선 · 여서정 선수, 근대5종 세계선수권대회 첫 금메달리스트 정진화 선수, 세계핀수영선수권대회 4관왕 장예슬 선수, 손 편지 공모전 수상자 등 물품 기증에 참여한 100여 명이 참석했다.

매설식은 국가대표 김연경(배구), 김현우(레슬링) 선수, 유승민 IOC 선수위원 등 물품 기증자의 축하영상 상영을 시작으로 경과보고, 타임캡슐 기록과정 영상 상영, 타임캡슐 제막, 하강 및 시삽 순으로 진행되었다.

타임캡슐은 대한체육회 창립 200주년인 2120년 7월 13일에 개봉될 예정이다. 대한체육회는 타임캡슐에 담긴 물품들이 미래 100년 후 후대가 현재 체육인들의 삶과 업적을 이해할 수 있는 소중한 역사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출처 : 대한체육회



The Best Steel For The Better Company

세계적 수준의 기술력과 고객을 위한 서비스 정신으로
세계 최고의 글로벌 기업으로 발돋움 하겠습니다.



TRANSFORMING FUTURE
[주] 화인베스트
경남 창원군 창녕읍 하리 25-1
Tel: 055-259-2000 Fax: 055-259-2020
<http://www.finebesteel.com>



TRANSFORMING FUTURE
[주] 화인코레스탈
부산시 사상구 광장로 10 화인빌딩 15층
Tel: 051-796-7000 Fax: 051-796-7069
<http://www.ficores.com>



TRANSFORMING FUTURE
동일철강 [주]
부산시 사상구 학정동 716-1
Tel: 051-322-1177 Fax: 051-326-5655
<http://www.dongilsteel.com>



모든 프리미엄 피자

방문 포장 시
40% 할인

얼티밋

넘쳐 흐르는 치즈를
포켓에 짹짹 담았다!

치즈포켓



진영푸드주식회사



케이블카 그 이상의 즐거움!

송도해상케이블카 부산에어크루즈

볼수록 새로운 바다! 갈수록 색다른 재미! 탈수록 즐거운 송도해상케이블카
하늘과 바다를 가로지르는 감동, 생생한 테마와 즐거움을 경험하세요!



스카이하버 전망대



소원의 용



모멘트 캡슐



VR 스카이스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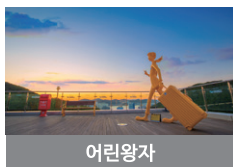
케이블카 뮤지엄



다이노 어드벤처



파티드(피규어) 갤러리



어린이왕자

문화와 즐거움이 가득한 오션 테마파크!

송도해상케이블카 부산에어크루즈
공통과 사진찍고, 소원도 빌어보고, 짜릿한 VR체험까지!
즐겁고 색다른 문화 콘텐츠가 눈 앞에 펼쳐집니다

문의 051) **247-9900**



The New E-Class 출시 New E. New Attitude.

메르세데스-벤츠의 시작,
스타자동차와 함께



Mercedes-Benz

스타자동차

전시장	해운대	051-709-6301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 277(우동)	서비스센터	해운대	051-797-9619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 287(우동)
금 정	051-710-2369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1912(구서동)		금 정	051-775-9811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1912(구서동)	
울 산	052-701-0503	울산 남구 삼산로 83번길 (달동)		울 산	052-705-7203	울산 남구 남중로 74번길 19(삼산동)	
기 장	051-792-7474	부산 기장군 기장읍 기장해안로 98		기 장	051-792-7410	부산 기장군 일광면 기장대로 1047-10	
인증중고차금 정	051-775-9820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1912(구서동)		대 표 번 호	1688-2369(benz)		
울 산	052-701-0513	울산 남구 삼산로 83번길 (달동)		홈 페이지	www.mbstar.co.kr		

정부 공인 표준 연비 및 등급
E 220 d 4M EX (배기량 1,950cc, 공차중량 1,900kg, 4륜구동), 복합연비: 13.2km/ℓ (도심연비 12.2m/ℓ, 고속도로연비: 14.7km/ℓ), 등급: 3등급, 복합CO₂배출량: 145g/km
※본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 상태, 운전 방법, 차량 적재 및 정비 상태 등에 따라 실주행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상기 제품 이미지는 국내 사양과 다를 수 있습니다.